

목차

1부. 12.3 비상계엄과 공공역사

사회. 박태선(한국외대)

발제. 12.03 비상계엄 아카이빙과 공공역사 | 김태현(한국외대) — 2P

아카이빙 주체 집담회

- 재단법인 진실의 힘: [123 내란] 프로젝트 — 14P
- 서강대학교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CGSI): ‘2024년 12월의 목소리들’ — 15P
- 롤링다이스: 『이토록 평범한 내가 광장의 빛을 만들 때까지』 — 16P
-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기록과정보·문화연구모임:
 - 집회 및 시민기록 : 광장으로 나간 아키비스트 | 민현창(한국외대) — 17P
 - 비상계엄 사건(국회) 기록화를 위한 가설과 방법론 | 이재윤(한국외대) — 19P

2부. 남태령을 기록하다

사회. 유현미(비상행동 시민발언 연구팀)

발제1. 남태령, 왜 그리고 어떻게 기록되어야 하는가: 기억을 통한 투쟁의 모색
| 김후주(남태령 심포지엄팀, 트위터 향연) — 20P

발제2. 남태령 대첩 타임라인의 재구성으로 훑아보는 남태령이 가능했던 지점들
| 최별(남태령 심포지엄팀,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 28P

발제3. 플랫폼 밖 아카이브의 의의: 남태령 연대가 SNS 사회운동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
| 김해은(스위스 로잔공대) — 36P

토론1. 최효진(한국외대) — 38P

토론2. 김동령(영화감독) — 42P

토론3. 권김현영(여성현실연구소) — 44P

12.03 비상계엄 아카이빙과 공공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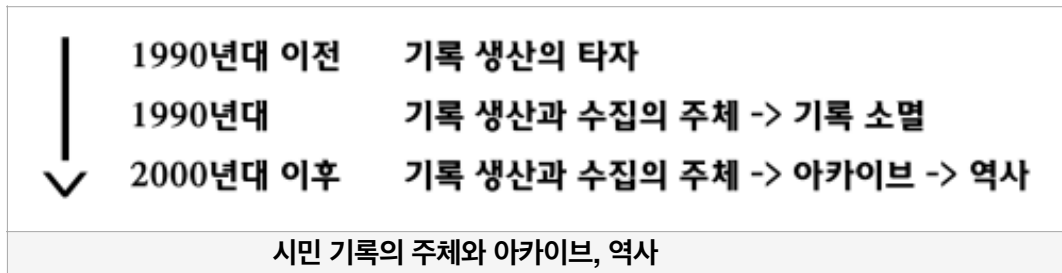
김 태 현 (한국외대)

목차
1.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록 주체
2. 시민과 아키비스트의 협업
3. 12.03 아카이브 만들기
1) 기본전략과 개문발차(開門發車)
2) 주제 중심 컬렉션 구조
3) 아키비스트 워킹 그룹
4. 오픈 아카이브와 네트워크
5. 12.3 아카이빙 현상
1) 4.16 아카이빙과 12.3 아카이빙
2) 개인의 경험 기억에 대한 기록 생산
3) 기록 저작물 사용의 공공화
6. POST-탄핵: 전환과 전망
1) 빈 곳 아카이빙
2) ‘국가-행정 섹터’에 대한 요구
3) 시민 중심 국가기록정책으로의 전환

1.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록 주체

- 우리 현대사에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록은 주로 ‘국가-행정’과 ‘자본-기업’이 맡아 왔는데, 전자는 행정 기록의 형태로 후자는 언론의 기사와 사진, 영상 등과 같은 매체로 구성되어 있음
- ‘국가-행정’과 ‘자본-기업’은 공공영역(Public Sphere)에서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을 기록의 대상으로 묘사-서술하는 오래된 사회적 주체임
- 그 결과 많은 역사적 사건의 기록들이 행정기관과 언론사의 아카이브에 존재해 있고, 이는 현재 민주화운동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인 상황임
- 우리의 현대사에서 시민 스스로가 조직적으로 자신들의 역사를 기록으로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학생운동이 가장 조직적으로 활동했던 1990년대 이후부터였음

- 당시 대학 신문사나 교지편집위원회, 방송국 등 언론은 최소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민주화운동과 학생운동에 대한 기록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전대협-한총련은 산하 조직으로 ‘중앙영상단’을 설치한 후 다양한 홍보 자료와 시각 기록물을 직접 생산하였음
- 하지만 지금까지 대학 언론사에 남아 있는 기록은 많은 않으며, 이것은 기록이 어떤 주체에 의해 생산되거나 수집되더라도 아카이브라는 논리적 집합체 혹은 시스템에 편입되지 못하면 안전하게 보존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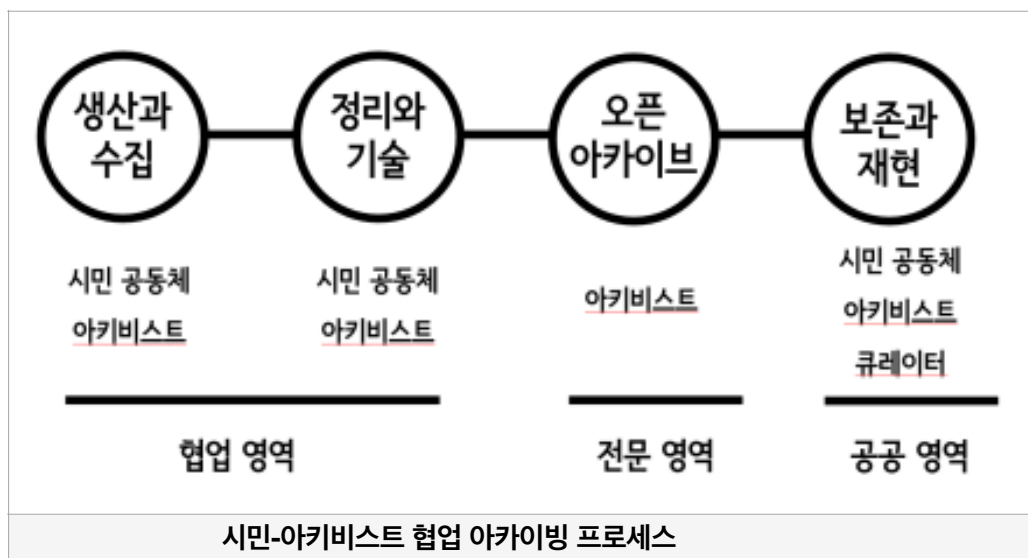


- 4.16 세월호 참사는 기억에 대한 사회적 재발견과 함께 시민 스스로 아카이빙하기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 낸 사건이라고 평가 받고 있음
- 4.16 아카이브는 참사가 일어나자마자 다수의 아키비스트가 사회적 실천 차원에서 피해자와 시민 기록을 꼼꼼히 수집 및 생산해 구성한 것이고, 이는 현재 4.16 기억저장소라는 당사자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음
- 4.16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기억의 사회적이고 실천적인 의미는 대중적으로 확산되었고, 이후 역사에서 시민 주체의 기억과 기록, 아카이브 활동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음
- 이번 12.3 아카이빙은 이와 같이 시민이 아키비스트와 협력하여 기억-기록-아카이브의 주체로 스스로 성장해 온 역사적 연속선 위에 있는 사건으로 볼 수 있음

2. 시민과 아키비스트의 협업

- 4.16 아카이빙 실천의 사례처럼 역사적 사건에 대한 아카이빙 실천은 스스로 기록하고자 하는 시민 주체와 이를 아카이브라고 하는 기록의 논리적 집합군 혹은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영원히 보존하려는 아키비스트 사이의 협업을 통해 가능한 일임
- 시민 각자가 경험한 역사적 사건의 다양성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기록의 내용에 반영된 후 생산되거나 수집되고, 시민의 다양한 역사적 경험과 실천은 기록의 내용과 형식으로 전환될 때 가능한 일임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시민들의 주체적 아카이빙은 역사적 사건이 지니고 있는 의미의 다층성과 입체성을 보존하고 재현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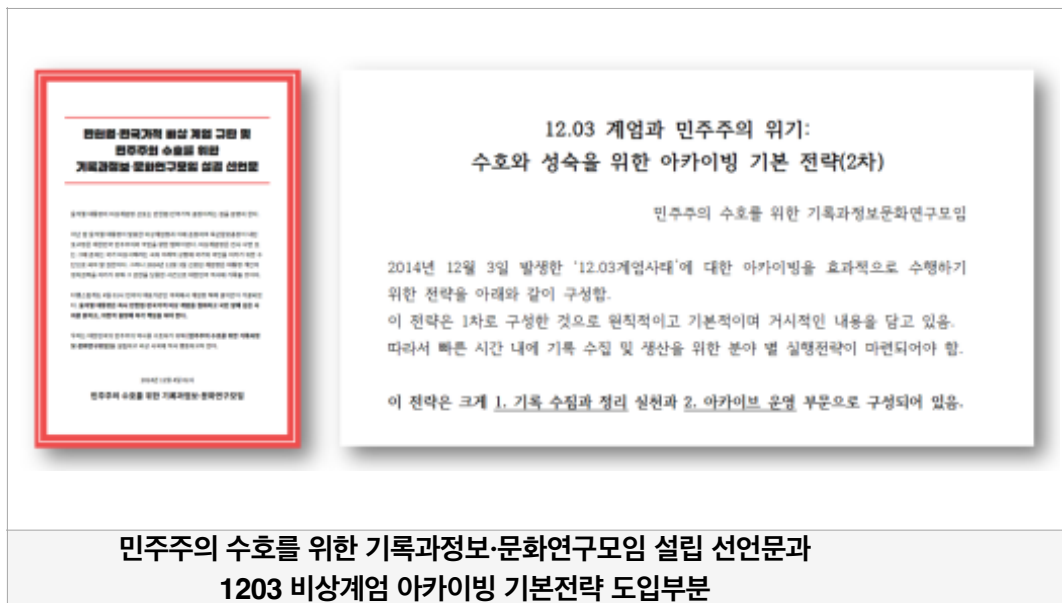
- 시민 개개인 혹은 공동체가 기록을 생산 혹은 수집하는 실천은 자신들의 경험 기억이 반영된 기록을 통해 역사적 사건을 서술하는 일이며, 이는 곧 공공 영역에서 서술된 시민의 역사, 즉 공공역사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음
-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기록이 생산·수집됐다고 해서 당연하게 보존·재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아카이브 구축 단계로 전환되어야 함
- 여기서 아키비스트는 시민들이 기록을 생산하고 수집하는 실천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가 있음
- 이를 위해 시민을 위한 대중적 기록 실천 지침서나 가이드, 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고 집필하며 실행할 과제가 지금 아키비스트 앞에 놓여 있음
- 두 번째 아키비스트의 사회적 책무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아카이브-시스템을 개발하여 시민들이 생산·수집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데 있음
- 시민과 아키비스트 협업의 목표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오픈 아카이브를 만들어 공공의 영역에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시민의 역사를 구성하고 서술하는데 있음 (아래 그림 참고)
- 1203 비상계엄 아카이빙은 이러한 시민-아키비스트 공동의 목표를 위해 구성된 역사적 실천이며, 향후 보다 확대된 아카이브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음



3. 12.03 아카이브 만들기

1) 기본전략과 개문발차(開門發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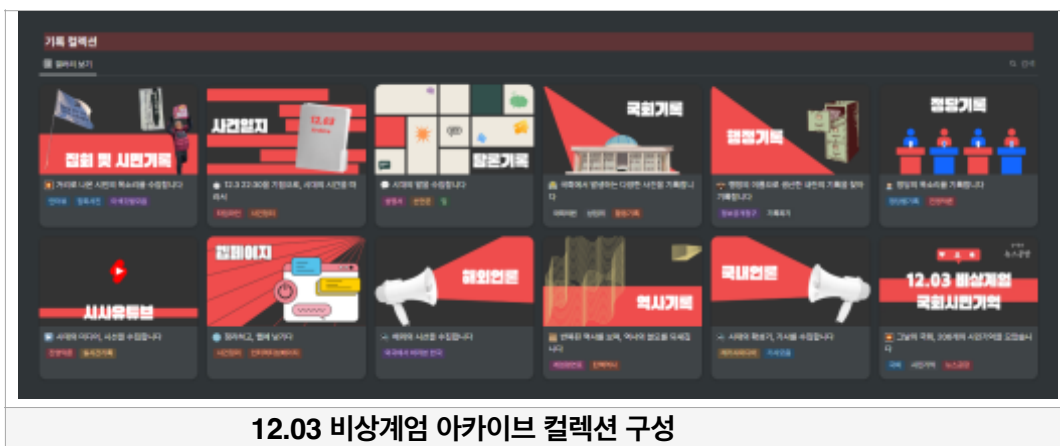
- 12.3 비상계엄은 한국 현대사에 또 하나의 불행한 역사를 추가하는 사건이었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하지만 빠르게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 기록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톡방에서도 비상계엄이 발표된지 4시간 만에 긴급 대응을 위한 연구모임이 결성되었고, 집회 참가를 위한 깃발 제작과 기록학 지식을 활용한 아카이빙 실천 기본 전략이 마련되었음 (아래 그림 참고)
- 12.03 비상계엄 아카이빙을 위한 기본 전략(이하 기본 전략)은 두 번의 검토를 거쳐 완성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아키비스트들이 결합하는 과정을 거쳤음
- 기본 전략은 문건의 서두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원칙적이고 기본적이며 거시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아키비스트 워킹 그룹의 시작에 당장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되었음
- 기록의 수집과 생산, 정리, 아카이브 업로드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방법론은 각각 주제별 담당 아키비스트들이 업무에 적합한 초안을 마련한 후 전체 회의 시간에서 집단적으로 검토 및 채택하였음



- 이러한 방식은 아카이빙 원칙과 전략, 방법론 마련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긴급하게 아카이빙을 시작해야 할 때 유효한 것으로, 일단 아카이빙을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과 원칙으로 먼저 구성한 후,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론 등은 아카이빙 실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집단적으로 채우는 것이었음(일명 개문발차 전략)
- 실제로 12.03 비상계엄 아카이브 워킹 그룹은 지금까지 전체 회의를 통해 부족한 점은 채우고 시행착오는 수정하면서 아카이빙을 진행하고 있음

2) 주제 중심 컬렉션 구조

- 12.03 비상계엄 아카이브는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 아카이브의 구조나 시간이나 장소, 혹은 매체 등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방식 대신 이용자가 이번 사건을 직관적이고 내용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주제별 구성 체계를 채택하였음
- 현재 12.03 비상계엄 아카이브 모두 12개의 주제별 컬렉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집회 및 시민기록’ 과 ‘2. 사건일지’, ‘3. 담론기록’, ‘4. 국회기록’, ‘5. 행정기록’, ‘6. 정당기록’, ‘7. 시사유튜브’, ‘8. 웹페이지’, ‘9. 해외언론’, ‘10. 역사기록’, ‘11. 국내언론’, ‘12. 12.03 비상계엄 국회시민 기억’으로 나뉘어져 있음 (아래 그림 참고)



- 이러한 주제별 컬렉션 구조는 몇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번 사건에 대한 다양한 기록과 정보, 역사를 주제를 중심으로 계층적·입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컬렉션의 특성별로 아키비스트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필요한 때마다 컬렉션을 자유롭게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는 점임
- 실제로 ‘12. 12.03 비상계엄 국회시민 기억 컬렉션’은 ‘1. 집회 및 시민기록’에 포함되어 있다가 독립된 컬렉션으로, 향후 추진될 ‘시민기록 수집’ 파트와 결합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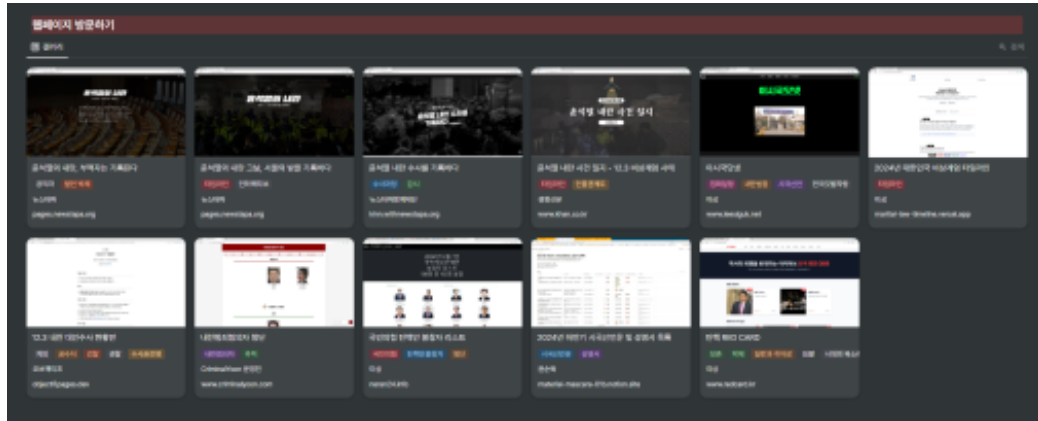
3) 아키비스트 워킹 그룹

- 12.03 비상계엄 아카이빙에 참여하고 있는 아키비스트는 한국외대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교강사와 재학생, 수료생뿐만 아니라 해외언론 파트의 통번역 전공자까지 모두 30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생업을 유지하는 가운데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 활동하고 있음
- 주제별 컬렉션 아카이빙을 시작할 때에는 기본 전략을 기반으로 업무의 내용과 범주를 공유했고, 구체적인 원칙과 방법론은 주제별 컬렉션 아카이빙 참여자들끼리 논의해 초안을 마련하였음

- 각 주제 컬렉션 대표에게는 줌미팅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전체회의에 참석·논의할 권리와 전체 결정사항을 팀원들과 함께 실행할 의무가 함께 부여되었음
- 12.03 비상계엄 아카이브 운영팀과 주제별 컬렉션 대표가 참석하는 줌미팅 프로그램 전체회의는 아카이빙 초기였던 2024년 12월에는 부정기적으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되었고, 이후 정기적으로 주 2회 진행되다가 아카이빙 프로세스가 안정되기 시작한 2025년 2월부터는 매주 일요일 오후 8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전환되었으며, 심포지엄 이후부터는 격주 별 회의로 변경될 예정임
- 아키비스트 워킹그룹 전체회의에서는 전략 검토 및 수정과 시행착오에 대한 문제해결, 효과적인 아카이빙 방법론 개발 및 공유, 진행 사항 점검, 외부 소식 공유 등 12.03 비상계엄 아카이빙과 관련된 모든 것이 논의된 후 결정 및 실행되었음

4. 오픈 아카이브와 네트워크

- 12.03 비상계엄 기록 수집과 생산, 정리 작업을 시작할 때 아카이브를 공개할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없었으나 차츰 기록의 양이 많아지고 질적인 면에서도 성과가 쌓여가면서 오픈 아카이브로의 전환을 논의하기 시작하였음
- 논의 끝에 비상계엄이 발표 한 달 후인 2025년 1월 3일 노선을 활용해 구성한 오픈 아카이브 서비스 페이지를 1203archive.kr이라는 주소로 공개하였음
- 서비스 페이지를 노선으로 구성한 이유는 이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작업할 수 있는 효과적인 협력 틀이면서 아카이브의 주제별 컬렉션 구성체계를 감각적이고 직관적으로 구성하기에 용이하였기 때문임
- 12.03 비상계엄 아카이브는 세 가지 측면에서 네트워크 확장 기능을 지니고 있는데 하나는 컬렉션 중 하나를 다른 시민공동체에서 제작한 콘텐츠나 아카이브 정보로 구성해 다양한 기록-콘텐츠-아카이브 네트워크로 무한히 확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점임 (아래 그림 참고)
- 다른 하나는 스스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거나 운영하기 힘든 시민이나 공동체의 기록들을 계속해서 추가 컬렉션으로 구성했다가 필요한 경우 독립시키는 인큐베이팅 아카이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임
- 마지막은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민·연구자·공동체와 연대를 도모하거나 참여 아키비스트들의 실천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이번 심포지엄이나 15분 스피치, 학술대회, 전시 참여 등이 이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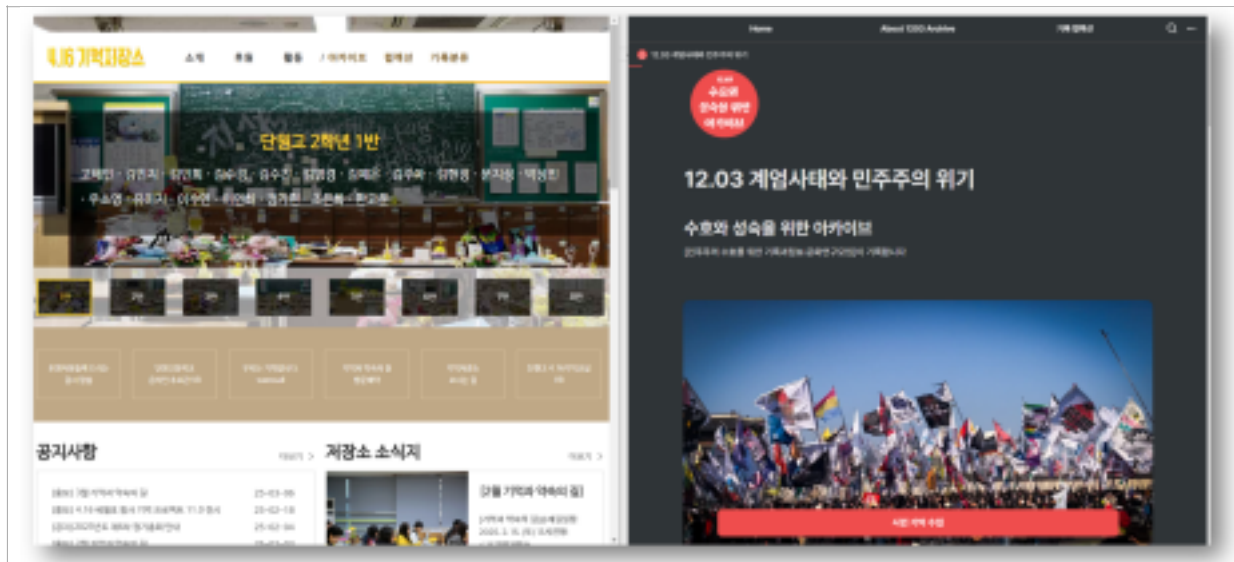


시민 공동체에서 구성한 관련 콘텐츠나 아카이브를 모아 놓은 컬렉션 화면

5. 12.3 아카이빙 현상

1) 4.16 아카이빙과 12.3 아카이빙

- 우리나라에서 기억이의 집단적이고 사회적 의미가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 학술 영역에서부터였고, 역사적 사건에 대한 경험을 어떻게 집단적으로 기억(기념)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담론 구성의 계기였음
- 학술적 범주에서 논의되던 ‘기억’이 4.16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대중적으로 확산되었는데, 이는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희생된 학생들에 대한 어른들의 미안함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사회적 차원에서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이자 개념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 따라서 4.16 아카이빙에는 희생자들을 기억하겠다는 의미와 사회적 책임을 잊지 않겠다는 각오가 자연스럽게 반영되었고, 그 결과 4.16아카이브는 대부분 피해자에 대한 기록과 시민들이 분향소에 남긴 추모 기록들로 구성되었음
- 4.16세월호 참사 초기부터 아키비스트들은 아카이빙 실천에 참여하였고, 주로 피해자와 시민들의 기록을 수집하였는데, 그 결과 그들의 활동공간은 자연스럽게 사건과 추모 현장이 중심이 되었음
- 이때 아키비스트들이 수집 정리한 대부분의 4.16 기록은 현재 4.16기억저장소에서 관리 및 보존하고 있음



4.16기억저장소(좌)와 1203 비상계엄 아카이브 홈페이지(우)

- 4.16기억저장소의 활동은 기관의 이름처럼 대부분 4.16기록을 보존하는데 치중되어 있으며, 일부 기록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
- 이에 비해 12.3 아카이빙 실천에는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기록학/업계의 아카이스트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상태임
- 그 대신 시민 스스로와 단체가 시민들의 활동과 경험을 기록으로 수집하고 남기고자 하는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4.16세월호 참사 당시의 아카이빙 현상과 비교해 아주 다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음
- 단순히 자신들의 기록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에 단편적으로 남기는 것을 포함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거나 별도 홈페이지는 만드는 등의 활동으로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음
- 여기에 뉴스타파나 경향신문, 뉴스공장 같은 언론사와 (재)진실의힘 같은 시민 단체, 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롤링다이스의 활동도 4.16세월호참사 당시의 모습과 비교할 수 있음

2) 개인의 경험 기억에 대한 기록 생산

- 자신이 참여한 시민 집회에 대한 영상 기록을 생산·편집하여 유튜브 채널에 꾸준히 업로드 하는 모습은 지금 현재 우리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12.3아카이빙의 가장 특징적임 모습이라고 생각함 (아래 그림 참고)



밀키 밀키(좌)와 한지민(우)의 유튜브 채널에 수록된 12.3 영상 기록

- 12.3 영상 기록 채널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하나는 아이돌 팬의 직캠 영상을 모아놓은 채널이나 일상 블로그 영상이 중심이 되는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가 자신이 직접 참여한 12.3 시민 집회를 영상 기록으로 제작해 업로드한 경우임
- 또 다른 하나는 아예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후 12.3 시민 집회 영상기록만 꾸준히 업로드 하는 경우로 채널 크리에이터의 세대적 특징이 영상 기록에 반영되어 있는 특징이 있음
- 마지막은 이 영상 기록들이 vlog형식을 지니고 있다는 것인데, 영상기록 콘텐츠의 서사가 대부분 시민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이나 집에서 출발하는 모습에서 시작해 집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등 영상일기와 유사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3) 기록 저작물 사용의 공동화

- 현재 저작권법은 기업의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 보호와 이윤극대화를 위해 제도화되어 있어 기록 저작물의 공공적 사용에 큰 제한이 있음
- 5.18민주화운동을 기록한 사진은 현재 5.18기념재단이 저작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필요한 곳에 사용료를 받은 후 제공하고 있는데, 주로 콘텐츠 기업이나 신문사, 방송국들(자본-가업 섹터)이 여기에 해당함
- 이러한 이유로 5.18민주화운동 기록 사진의 대중적 이용이 제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는 5.18에 대한 기억이 대중적인 차원에서 계승되고 확산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임



6대 언론사의 홈페이지 첫 화면(2024.12.28.)

- 자본-기업 중심의 저작권법의 문제는 이번 12.3 아카이빙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기록이 하루의 중요한 사건을 보여주는 신문사의 홈페이지 기록임
- 이곳은 12월 3일 이후 전개되고 있는 비상계엄과 탄핵 사건의 흐름을 언론사 별 성향에 맞춰 상징적으로 재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매우 맥락적으로 잘 보여주는 기록적 가치가 있가도 말할 수 있음
- 역사적·기록적 가치가 높은 이 기록은 12.03 비상계엄 아카이빙 팀에서 매일 규칙적으로 수집(화면 캡처)하고 있으나 저작권의 법률적인 문제로 오픈 아카이브를 통해 공개하지 못하고 있음
- 공익에 부합하는 기록 저작물의 공공적 활용을 위해 저작권법을 느슨하게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함

6. POST-탄핵: 전환과 전망

1) 빈 곳 아카이빙

- 처음 12.03 비상계엄 아카이빙을 시작할 당시 이 프로젝트의 종료시점은 암묵적으로 아카이브의 이름과 같이 탄핵 확정일에 맞춰져 있었음
- 탄핵 결정을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두 가지 사항을 검토해야 하는데, 하나는 이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계엄·내란 재판과 대선까지 연장할

것인지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 12.03 비상계엄 아카이브에 빠져 있는 주제 컬렉션을 추가로 발굴 및 추진해야하는지에 대한 것임

- 예를 들어 대학의 경우 비상계엄과 탄핵 사건 전부터 비민주적인 정치권력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나왔고, 최근까지 시대적 사건의 중심 장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꼼꼼한 아카이빙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12.03 비상계엄 아카이브 주제 컬렉션에는 제외되어 있음
- 대학 사회의 경우 새해가 시작되면서 학생회가 교체되는 등 급격히 변화하는 특징이 있어 관련 기록이 빠른 속도로 소실되고 있는 중으로 예상됨
- 이러한 이유로 현재 아키비스트를 충원해 대학별 12.03 비상계엄 아카이빙을 추가로 진행해야 하는 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탄핵 판결 직후인 3월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위의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논의한 후 향후 12.03 비상계엄 아카이빙 활동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집담회 개최가 필요한 상태임

2) ‘국가-행정 섹터’에 대한 요구

- 12.03 비상계엄 아카이빙을 추진하면서 이런 종류의 국가적·역사적 프로젝트가 시민-사회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발생하였음
- 아카이빙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아키비스트 인력과 오픈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시민 집회 등에 대한 수준 높은 시각 기록(사진과 영상 등) 생산 등은 국가 차원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임



- 역사적 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아카이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현재 국가기록원이나 국립대한민국역사박물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이 있으나 거의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위 세 기관은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뿐만 아니라 2000년대 이후 주요한 역사적 사건,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과 광우병 반대 시위,

4.16세월호 참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등에서도 아무런 아카이빙 사업을 펼친바 없음

- 그 결과 시민이 주체가 되었던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록, 특히 수준 높은 시각 기록을 사용하려면 자본-기업인 언론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이러한 환경은 시민 개개인의 기록 활용, 즉 공공적 사용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임
- 국가적 차원에서 시민들이 주체인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기록 생산과 공개를 추진하도록 국가-행정 영역에 공개적으로 요구해야 함

3) 시민 중심 국가기록정책으로의 전환

-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기록과 아카이브의 주체는 ‘국가-행정’과 ‘자본-기업’에서 ‘시민-사회’의 영역까지 확장하였음
- 하지만 아직도 많은 역사적 사건의 기록은 국가와 자본 영역에 생산되고 아카이브 역시 이 영역에 주로 구축되어 있는 반면 시민이 주체가 되어 생산되는 기록과 아카이브는 불안정한 상태로 산개되어 있음
- 그 동안 시민이 주체인 아카이브는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고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은 지속성 없이 산발적으로 추진되다 사라지는 경우가 다반사였음
- 저작권법과 기록물법을 살펴봐도 여전히 기록 생산과 아카이브 운영, 콘텐츠 활용의 주체는 국가나 자본 영역임이 명백해 보이는 현 상황에서 시민 중심으로 국가기록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함

1부 12.3 비상계엄과 공공역사 아카이빙 주체 집담회 1.

(재)진실의 힘 [123내란] 프로젝트

123내란 사태와 관련, 거리에 나선 시민들의 말과 행동이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를 지킨 힘. “나라를 구했다”는 한 문장으로 표현될 뿐인 그 시민들을 찾아내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작업이 필요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면 한국 현대사에서 큰 의미를 지닌 기록물이 될 것임.

진실의 힘은 2024년 12월 긴급하게 [123내란 기록팀]을 꾸리고 2가지의 작업을 시작함.

첫째, 123내란의 밤, 국회 앞으로 달려온 시민들을 인터뷰하고 있음(최소 300명 계획). 국회 앞에 모인 시민은 누구인지, 그날 밤 무엇을 보았고 느꼈는지,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기록함. 기록집 제작은 물론이고, 출판물/르포 등을 기획하고 있음. 전문 사진작가들이 참여하고 있음. (사진으로 감사패도 만들 예정)

둘째, 이후 이어진 각종 집회에서 시민들의 자유발언 수집. 그것을 토대로 다양한 연구/학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음. 문학, 역사학, 사회학, 정치학, 법학계의 연구자들의 다양한 관점을 통해 통치의 역사 및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와 발언을 새롭게 정의하며, 현장의 언어들을 인문사회학적 지식을 통해 설명하는 시도를 기획 중임.

서강대학교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CGSI) ‘2024년 12월의 목소리들’

서강대학교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CGSI)는 12월 3일 계엄 사태 이후, 전국 곳곳에서 발표된 성명과 대자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무력감 속에서 무엇이든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주셨던 동료분들의 제안과, 어찌됐거나 기록을 남기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역사학 전공자로서의 본능(?)이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라면 이유일 것입니다. 이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목적의식은 희미했지만,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제보를 주셔서 대자보와 성명 등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업은 ‘2024년 12월의 목소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고, 2월 11일부터 구글폼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물론 CGSI의 연구보조원이신 김민지 선생님께서 개별적으로 수집해주신 자료도 있습니다. 수집한 자료를 분류한 뒤 탈초하여 이미지가 있는 경우 이미지와 함께 CGSI의 홈페이지 아카이브에 업로드하였고, 그것을 2월 28일부터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며, 오류도 바로 잡는 중입니다. 이 자료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연구소 외에도 많은 분들이 훨씬 더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자료를 보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오히려 안심하고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즉, 행여나 빠진 부분이 있을 때 CGSI에서 진행한 작업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자료를 보며 생각하는 것은, 과거 학생운동이 그나마 힘을 발휘하던 시기에 쉽게 볼 수 있었던 ‘대자보’가 다시 우리 사회, 특히 대학가에 나타난 것을 어떻게 봐야할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대자보의 물성, 한시성, 상징성, 그리고 제한된 익명성이 12월의 목소리와 결합될 때 나타나는 의미, 수많은 발화자들이 발언의 방법으로 대자보를 선택한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모아둔 기록을 더 꼼꼼히 살피고 다른 방식의 발언과도 비교하며 또 비슷한 작업을 해오신 많은 분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의 목소리들’은 현재 CGSI의 홈페이지에서 살펴보실 수 있으며, 정리된 목록은 구글시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IAc52JzY03_uL0faPMSLtRVSVHtJFv36NOpr-1tG86E/edit?gid=1149278323#gid=1149278323)

1부 12.3 비상계엄과 공공역사 아카이빙 주체 집담회 3.

롤링다이스 『이토록 평범한 내가 광장의 빛을 만들 때까지』

롤링다이스는 12.3 계엄사태 후 2030 여성(젠더퀴어 여성 포함)의 집회 참여 및 시위 조직화 경험 수기를 엮은 앤솔로지 『이토록 평범한 내가 광장의 빛을 만들 때까지』를 3월 중 출간한다. 이 책은 2030 여성들이 어떻게 현재의 정치적 주체가 되었는지를 탐구하며, 응원봉 시민, 학교 민주화 투쟁 당사자 등 저자 각 개인이 어떤 정동 속에서 광장으로 향했는지를 조명한다.

90년대생 여성들은 소녀시대와 이랑의 노래를 들으며 무엇을 결심했을까? K-POP 팬들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밤샘 시위대가 되었을까? 지워지고 ‘개딸화’ 되었으며, 우익화의 기제 속에서 가장 탄압받던 여성들은 어떻게 온라인에서 서로를 확인하고 광장에서 서로를 찾았을까? 타국에서 어떤 마음으로 시위를 조직하고 탄핵을 외쳤을까? 이 책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이자, 치열하게 투쟁한 여성 시민의 기록이다.

『이토록 평범한 내가 광장의 빛을 만들 때까지』 출간 후, 롤링다이스는 올해 한국외대 시민기록학교와 협력해 활동 기록법을 담은 도서를 출간할 계획이다.



집회 및 시민기록 : 광장으로 나간 아키비스트

민 현 창(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기록과정보·문화연구모임)

2024년 12월 4일 오전 2시 발족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기록과정보·문화연구모임’은 빠르고 적극적인 행동을 모색하였습니다. 1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아카이브를 만들자는 연락을 받고 <12.03 계엄사태와 민주주의 위기-수호와 성숙을 위한 아카이브>(이하 <12.03 아카이브>)의 실무진으로 참여했고, 이듬해 1월 3일에 아카이브를 선보였습니다.

현재 18명이 함께하는 실무진은 각자 담당 주제를 가지고 각지에서 기록을 생산,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제가 맡은 집회 및 시민기록의 가장 큰 특징은 광장에 나가야한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15번의 집회에 참석하며 600여 건의 기록을 생산하였고, 많은 분들로부터 기증받은 기록을 포함하면 총 1,100여 건의 기록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집회 및 시민기록은 시민의 메시지를 담고있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많은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외면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행정기관은 업무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을 관리하는 것만이 법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어서 현재까지 집회와 관련한 기록은 안전관리 업무 관련 기록만을 찾아볼 수 있을 뿐입니다. 소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공기관에서 집회 및 시민기록을 취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로 보입니다.

민간에서는 집회 활동을 기록하고 보존하려는 의지를 자주 목격하지만, 이를 위한 지식과 비용이 항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나중에 언론기사나 SNS 등에서 수집하더라도 생산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 그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은 집회 및 시민기록 뿐만 아니라 <12.03 아카이브> 전체를 아우르는 문제입니다. 비상계엄 직후 시급하게 작업에 착수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기록화 대상은 처음부터 명확하지는 않았습니다. 집회에 참여하며 그곳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요소들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금도 구성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집회에서 등장하는 깃발이나 응원봉 같은 이색적인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켓·포스터·현수막·전단지와 같은 집회용품, 노점·부스·푸드트럭 등의 시설, 경찰벽·경찰버스와 같은 경찰 관련 기록, 무엇보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집회에 참여하고 행진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주요 대상으로 담았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기록은 효율적인 관리와 서비스를 위해 설계된 메타데이터와 함께 업로드하면 비로소 이용자들의 모니터에 도달하게 됩니다.

3개월 간의 기록화 작업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아래 qr코드를 참조해주시요. 지난 작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집회 및 시민기록이 가지는 의미를 몇 가지 담아보았습니다. 저희가 담아낸 기록이 시민의 목소리를 보다 생생하고 실증적으로 담아내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말풍선이자, 우리 사회를 좀 더 성숙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집회 및 시민기록
기록화 작업 소개

남태령 아카이빙 심포지엄 발제문

국회기록컬렉션 이재운, 김의진

비상계엄을 시작으로, 사건은 일파만파 매번 기대와 상상을 갱신하며 이어져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 탄핵 표결과 곧 있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계엄이 미치는 여파가 남아있습니다.

그동안 국회는 비상계엄의 1차 표적이면서, 비상계엄 해제가 결의되었고 이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차례에 걸쳐 표결된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국회라는 장소에서 일어난 다양한 일들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기록할 것인지,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국회에서 일어난 최대한 많은 일을 포착하고 이를 기록화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기록과 관련된 결정이나 기록자의 서사를 남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는데요. 기록 정책뿐 아니라 수기를 담은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저희는 기록화에 앞서 비상계엄 사건과 국회 기록을 규정하고 그 수집범위를 설정했습니다. 기록 정리를 위해 장소를 기반으로 그룹화하고 각 그룹 안에 컬렉션을 하나씩 추가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기록 그룹은 (1)국회의사당 그룹, (2)국회경내 그룹, (3)국회의사당역 그룹 등 3개인데요. 이렇게 (드라이브 트리구조 사진 삽입) 각 그룹별 컬렉션을 할당해 이 구조 안에서 기록을 차곡차곡 정리해나갔습니다. 기록을 쌓아가면서 각 그룹 및 컬렉션 기록들이 갖는 속성을 점차 밝혀갔고요. 이러한 정보를 다시 매뉴얼에 반영하면서 작업했습니다.

저희는 기록을 직접 촬영·녹음·녹화하거나 연계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요. 최근까지 국회에서 이루어졌던 비상계엄 내란행위 국정조사 역시 유튜브 채널인 국회방송TV와 국회 회의록 채널을 통해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주로는 저랑 의진쌤이랑 국회라는 장소에서 진행된 공식·비공식적인 움직임들을 직접 이곳저곳 다니면서 기록했습니다. 저희가 출퇴근하거나 우연히 이동하며 포착한 현상이나 장면들도 함께 기록했는데, 컬렉션을 죽 보시다 보면 2층 로비에 걸린 국회의원의 대자보나 표결을 앞둔 전날 밤 지하철역 사람들, 간혹 사무실 내부 한강 작가의 노벨상 인터뷰가 송출되던 TV 화면, 길목에 설치된 현수막 등 곳곳에 저희 눈에 들어온 풍경들을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단 저희는 기록자를 충분히 드러낸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연계 수집의 경우 생산자 항목에 수집자 이름을 병기하고, 입수경로 항목을 만들어 기록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와 방식으로 생산·수집했는지 그 목적과 경위가 드러나게 하려고 했습니다.

2부 남태령을 기록하다 발제 1.

남태령, 왜 그리고 어떻게 기록되어야 하는가: 기억을 통한 투쟁의 모색

김 후 주(남태령 심포지엄팀, 트위터 향연)

근현대 한국의 거칠고 역동적인 정치지형에서, 시민들의 연대와 저항은 역사의 장면들을 수놓으며 근대화, 민주화를 일궈냈다. 항일 독립운동부터 정부수립, 민주화 운동, 2025년 비상계엄 내란세력 퇴진운동까지. “나라로부터 받은 은혜도 없으면서 위기가 닥치면 떨쳐 일어나는 독특한 유전자를 가진 민중들이 화답하여 일어나 싸웠다.”



특히 여성, 농민, 노동자, 학생 등 사회적 약자집단의 저항과 연대, 그 역할이 두드러지는 경우가 많았다. 우금티에서 스러진 전봉준의 동학농민운동, 유관순과 여학생들이 주도한 만세운동, 부정선거에 저항한 지방의 학생들이 이뤄낸 4.19 혁명, 전태일 열사의 분신으로 도화선에 불이 붙은 노동운동, 광주의 5.18, 대학생들의 6월 항쟁, 2016년 박근혜 탄핵, 그리고 2024년 12월 21일 농민과 시민의 연대가 승리한 ‘남태령 대첩’ 까지.

이번 정국에서 남태령 대첩이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엔 여러 가지가 있고 이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그중에서도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은 민주주의적 평등이라는 보편가치가 잘 지켜질 때, 조직된 시민연대, 민중이 갖는 혼란스러우면서도 폭발적인 힘일 것이다. 현 광장의 시민들은 내란 수구 세력의 퇴진에도 열성적이지만, 퇴진 이후의 사회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이번 내란정국에서는 지

난 2016년 박근혜 탄핵시기와 다르게 소위 “2030여성 응원봉부대”로 대표된 새로운 세대가 반박의 여지를 일소하고 당당하게 광장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했다. 배제와 소외, 빈곤, 차별에 처해있는 약자 정체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청년들을 주도층으로 한 새로운 시민연대의 방식이 보여준 위력과 속도, 역동성이 두드러졌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그동안 소외됐고 인정받지 못했던 약자와 소수자, 각종 폭력의 피해자들이 지금까지의 방법과는 다르게, 하지만 기존의 역사와 연결되며 갑자기 아주 높은 수준의 직접저항을 시작했다. 이 장면들은 냉소와 무기력 속에 침체되어 있던 한국 사회에 충격과 울림을 주고 있다. 특히 ‘남태령 대첩’은 정말 오랜만에 이룬 시민사회의 승리이자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언급되고 있다. “윤퇴청”이 2025년 1월 23일에 발표한 40세 이하 광장의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비상계엄 이후 가장 인상 깊었던 현장을 묻는 질문에 ‘남태령’이 응답의 약 60%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한강진, 3위는 여의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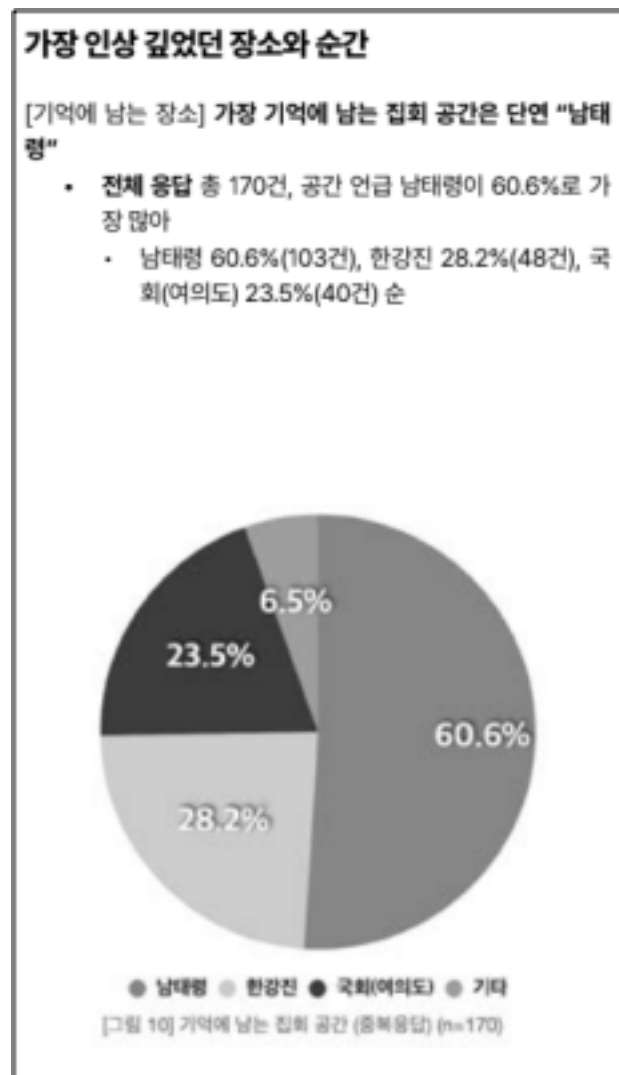


그림 2. 윤퇴청 설문조사 결과 발표 자료집 11페이지.

최근 현장과 후속 행사들에 참여하면서 체감하는 비율도 비슷하다. 아직도 광장의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남태령을 호명하며 내란세력을 견어내고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자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농민운동을 초월한 사회운동조직 전반에 ‘남태령 효과’라고 불릴만한 급격하고 강력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정치권, 학계,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태령을 주목하고 해석하고 있다. 이번 정국의 수많은 사건 중 “남태령 대첩”의 존재감이나 무게가 크다고 판단하기에 무리가 없다.

남태령은 왜 기록되어야 하는가

그날의 남태령을 잘 들여다보면 이번 내란 정국 광장의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심지어 분열과 내적 갈등으로 인한 전복, 혐오와 배제의 역습,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의 불길한 신호마저도 남태령에 내포되어 있다. 남태령을 기록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 기록의 결과물들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낼지 기대하는 바를 정리해 보았다.

1. 남태령을 경험한 주체들의 자기이해: 남태령의 상황의 큰 두 타임라인, 투쟁주체인 농민의 시점과 연대하는 시민들의 시점을 메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남태령에서 농성한 당사자들이 당시 그 상황을 직접 통과해 나오긴 했지만, 그 상황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된 것인지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 더욱이 트위터라는 타임라인 구조, 리트윗 기능이 발휘한 엄청난 유속의 실시간 초고속 연쇄 정보 전달력과, 유튜브 라이브라는 지속적인 현장중계 기능, 그에 수반한 빠른 행동력과 동원력이 거의 기적처럼 보이는 현장을 만들어냈다.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트위터를 이용해 온 유저로서 빠른 정보처리기능과 즉각적인 피드백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남태령 당시 이 물결을 온전히 다 관리하거나 따라잡기 버거울 정도로 반응이 폭발적이고 지속적이었다. 반면 정보 소외계층으로 온라인 미디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의 농민층에게 시시각각 벌어진 남태령 대첩의 진행은 시간이 꽤 지나간 지금도 신비와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듯하다. 이 현상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는 작업으로서의 기록과 전시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남태령과 광장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현상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남태령의 현장에 있었던 직접경험자들, 사건 당시 남태령을 매체로 접한 간접경험자들, 남태령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관심이 있거나 남태령을 호명하는 사람들 사이의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과 그 간극이 있다. 이 자체도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경험자들의 증언과 기록이 없다면 이런 차이에 대해 들여다볼 수도, 논의할 수도 없다.

2. 연대의 연장, 지속으로서의 기록: 일단 이 내란정국의 현장들이 지워지지 않도록 기록하자는 인식과 움직임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남태령 이후 비슷한 활동이 더 크게 확산되었다. 어느 누구의 지시나 요청도 없었지만, 나를 포함한 시민들은 자발적

으로 광장의 면면을 수집하고 기록했다. 기록작업의 계기나 목적은 현장에서 발견한 연대의 정치적 고양감 유지, 투쟁 경험의 체화/의미화, 승리의 요건들을 분석해 보려는 시도, 사료 생성, 연구 목적 등 다양했다. 계기는 비록 다양했다라도 공통적으로는 남태령 대첩의 승리에 대한 애정과 놀라움, 이 현장에서 시작된 변화들을 사회 전반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열망이 기저에 깔려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번 광장은 퇴진이라는 표면적 목표를 초월한 사회대개혁 의지, 민주주의의 근본적 회복 열망이 강력한 원동력으로 작동 중이다. 남태령 대첩이라는 현상이 재현되고 지속되길 원하는 사람들은 이 현상을 포착하고 고정함으로써 이 현장이 제공한 감각이나 추억, 의미들을 확대 재생산하는 작업을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계속하고 있다. 사건 당일로부터 수주,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태령에 대한 증언이나 인용이 계속되고 있다.

3. 왜곡과 날조에 대항하는 기록: 투쟁현장은, 특히 남태령은 우발적이고 위험했던 현장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기획이나 기록이 없거나 부족하다. 개인적으로 남태령이 받는 관심과 주목도에 비해 기록이 부족하고 잘 정리되거나 보도되지 못하다는 느낌이 강했다. 심지어 레거시 미디어는 공영방송임에도 없었던 일을 지어내면서까지 농민들과 시민들을 무도한 폭도이자 범죄자로 공격하며 경찰을 옹호했다. 긴 농성 끝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남태령 대첩의 트랙터 행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쟁이 끝난 직후 경찰의 긴급하고 억지스러운 소환통보가 이틀만에 발송되었으며, 같은 날 진행된 국회의 행안위 긴급 현안질의 자리에서 경찰청장 대행, 서울청장 대행이 남태령에서 있었던 상황에 대해 허위 증언(“농민들이 술을 마셔 만취상태였다.”, “트랙터가 8차선을 불법 점거했다.”, “과천 방면은 막지 않았다.”, “시민들을 보호하려고 했다.”)을 아무런 책임감 없이 웃으면서 내뱉는 모습을 보며 심각한 분노와 위기감을 느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수많은 시민이 증인인데도 이렇게 날조되고 왜곡될 수 있다. 최근에는 발달된 기술로 인한 딥페이크, 사진/영상 조작이 가능해졌고 이런 잘못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는 한국만이 겪고 있는 것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레거시 미디어가 신뢰성이나 영향력을 잃고 그 빈 자리를 온라인 플랫폼 콘텐츠나 대안 언론을 자처하는 사적 매체들이 채우고 있다. 유튜브, 팟캐스트, 소셜미디어, 뉴스레터 등 정보를 전달하는 경로와 정보의 양이 너무나 거대해졌고 이 변화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지체현상이 발생하면서 생긴 진공상태, 공백의 영역에서 극우적 선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정치적 세력과 긴밀히 결탁하여 역사상 유례없는 보수결집 성공으로 소위 “대안 사실”론을 주장했던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했고 그 일등공신으로 일론머스크가 백악관에 입성하기에 이르렀다. 한국도 녹록치 않다. 기록을 제대로 남기고 정리해서 알리지 않으면 특정인의 의도대로 기록되거나, 은폐되어 잊히거나 조작된 불명예 속에 남게 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생각보다 취약하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는 무기로서의 집단적 기억의 기록작업이 필요하다.

4. 남태령 대첩 자체를 알리고 전파하기: 현 시국에 대해 관심이 있는 정치고관여층 대중이라면 남태령을 아예 모르기 힘들 것이다. 시위에 한 두 번 참여해 본 정도의 관심이라도 있다면 남태령을 언급하는 발언을 듣지 않고 넘어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시민사회

내부에서 남태령은 긍정적으로건, 부정적으로건 많이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그 외의 관심도가 낮은 인구에게 광장의 소식은 일부러 찾아보지 않는 이상 접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조사를 하고 기록작업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보니 고관여층이 폭발적으로 많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대부분은 정치적인 사안에 무신경하다.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면도 한몫한다. 공중파로 대표되는 메이저 언론 대부분 광장을 비추는 것을 꺼리는 것처럼 보일 지경이다. 광장에 나오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정보량 차이는 마치 다른 나라에 사는 것과 같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 틈을 어느 정도 채워넣지 않는다면 분열되어 있는 사회의 골이 더욱 벌어지는 악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 또한 반복되는 역사에서 조금 더 진보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록과 기록의 보존, 보존된 기록을 꺼내어 되새김하고 소화해내는 과정으로 교육이나 연구, 인식개선 운동 등 현장의 재현이 필요하다. 일부 은폐되고 많은 비율로 비가시화되는 민주주의적 행동, 시민결집의 장면과 의미들을 기록한다는 것은, 퇴진과 사회개혁 이후 우리가 재조명해야 될 곳을 미리 열어 밝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남태령 대첩은 그 중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질 만한 사건이고 이번 내란정국의 광장이 가지는 특징들, 강점과 약점, 승리서사로 인한 정동적 변화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잘 드러나있는 집약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록하고 전파하기 좋은 예시로서 다룰만하다.

남태령은 어떻게 기록되어야 하는가

남태령을 보다 자세하고 생동감 있게 기록하기 위해 남태령 아카이빙 팀이 다양한 작업들을 병렬 진행 중이다. 주로 공식메일을 통해 시민들의 기록 제보를 받거나 소셜미디어를 참고하거나 직접 검색하여 남태령과 관련된 거의 모든 형식의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다. 이렇게 수집한 자료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작업을 진행하는 중이다. 각각의 작업들을 간략히 소개하겠다.

1. 트위터: 가장 처음 구상한 것은 트위터 타임라인(향연 @symposion_)과 쪽지(DM)을 중심으로 한 기록이다. 향연의 전봉준 투쟁단을 언급한 최초의 트윗부터 남태령 대첩 이후까지 전봉준 투쟁단에 관련한 트윗들, 쪽지들을 정리하고, 이번 내란 정국에서 잘 편집된 정보전달이라는 큰 역할을 한 트위터 대안언론 에스텔 뉴스계정(@t_ransborder)의 관련 트윗, 거기에 더하여 전봉준 투쟁단을 언급하는 크게 바이럴된 이외의 트윗을 남태령 아카이빙 계정(남태령 기록보관소 @namchiving)에서 리트윗(RT) 하는 식으로 수집하여 그 계정 자체를 보관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RT는 RT한 시점으로 타임라인을 구성하기 때문에 원트윗이 작성된 시간선으로 보기 위해서는 엑셀 등의 외부 프로그램으로 입력하는 후작업이 필요하다.

남태령 대첩은 다른 어떤 현장보다 트위터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남태령의 현장 상황을 재구성하고 시민연대활동의 역동과정을 추적하는 작업은 트위터를 검토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또한 남태령에 관한 경험담, 후일담을 가장 많이 관찰할 수 있는 곳이

트위터다. 다만 트위터의 정책이 일론 머스크의 인수 이후 굉장히 달라졌고 접근성이 나 활용에 있어서 어려워진 점이 많다. 수작업이 많이 필요해졌다.



그림 3. 남태령 기록보관소 트위터 프로필

2. 온라인 게시 영상: 남태령은 우발성으로 인해 다른 현장에 비해 양질의 사진, 영상 기록이 부족하다. 급하게 개인 핸드폰으로 촬영된 <전농TV>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유일한 공식 기록이며, 심지어 18시간짜리 첫 번째 라이브 원본 영상은 영구 삭제되어 복구불가능 했지만, 다행히도 소실된 라이브 영상을 전체 녹화한 사본이 2025년 2월 18일 남태령 아카이빙팀에 입수(제공자 트위터 이용자 @xel04)되었다. 해당 사본영상이 입수되기 전에는 전농의 공식 채널이 아닌 외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다수 유튜브의 영상자료, 언론의 촬영자료 등을 활용해 조각모음 방식으로 영상 시간선을 재구성해 볼 계획이었지만 그럴 필요는 없어졌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다른 각도에서 현장을 기록한 다양한 영상들을 종합해보는 것도 재구성된 현장의 풍부함을 더해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이 역시 많은 인력과 자원이 필요한 일이다.

3. 개인 소장 영상 및 사진: 남태령에 관한 개인 영상과 사진자료를 남태령 아카이빙 공식 트위터 계정과 메일로 제보를 받아 하드디스크를 구입해 백업해 놓았다. 제보를 받은 사진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메타데이터가 보존된 상태의 원본을 요청하고 간략한 코멘트도 함께 보존하고 있다. 수합 된 사진과 영상자료를 보존하고 시간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머나이 소프트웨어의 “마이마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https://namtaeryeong.mymy.io/landing>) 후원을 받아서 시적용 중이다. 이 시청각 자료들을 일단은 모아두었지만 어떻게 보존하고 공개할 것인지는 비용이나 기술적 문제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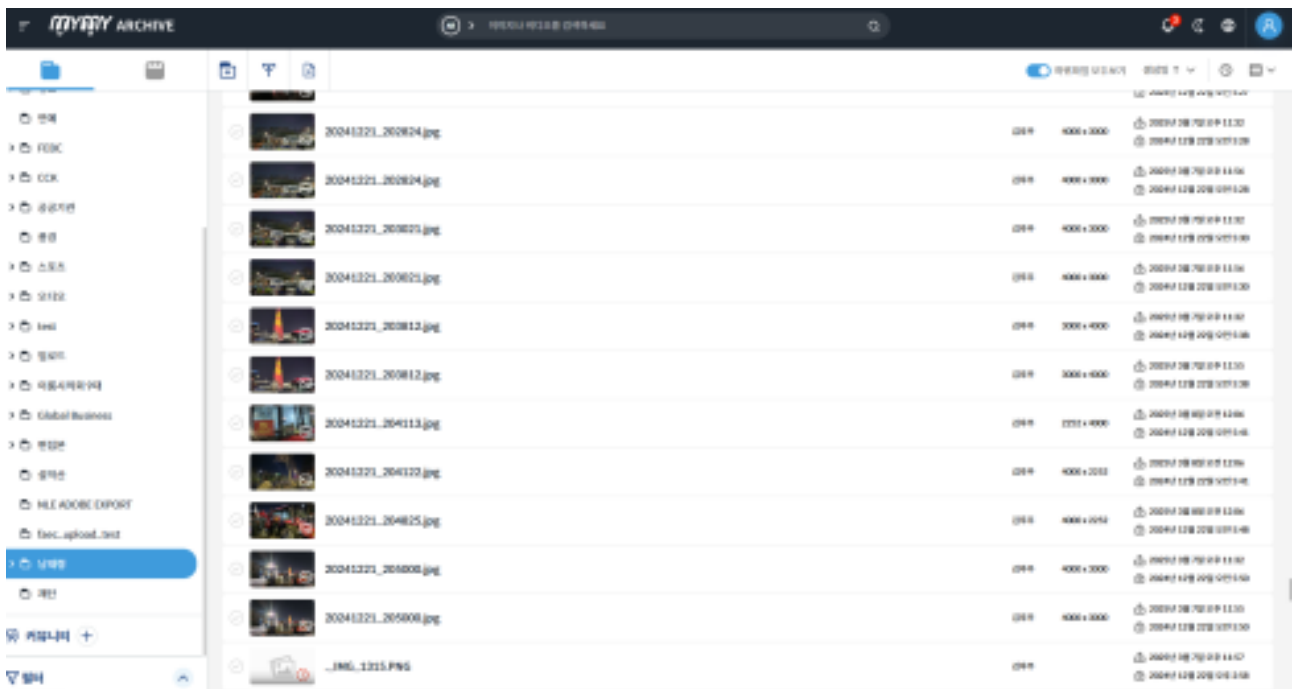


그림 4. 아카이빙 플랫폼 마이마이에 업로드 된 제보 사진 시간순 정렬

4. 자유발언문/현장상황 개인기록/인터뷰 텍스트화: 남태령 농성현장에서 밤새도록 계속 이어진 자유발언과 현장의 상황을 텍스트로 보존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직접 제보를 받는 동시에 남태령 라이브 영상을 백업해 음성을 추출하거나 직접 속기식으로 녹취기록을 하고 있다. 남태령 대첩의 특징 중 하나가 즉흥적인 자유발언과 이에 응답하는 청중의 연쇄작용이다. 사진이나 영상 등 시각자료들이 현장의 물리성을 담지한다면 텍스트 자료들로는 현장의 성격과 정동적 변화를 전달할 수 있다. 녹취작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다른 현장들에서 있었던 자유발언과 남태령의 자유발언이 확연히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다. 그리고 남태령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을 만나며 경험에 대한 인터뷰를 하다보면 의미화나 후속연구에 참고할 의견이나 소재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남태령 대첩의 한복판에서 너무나 강렬한 경험을 했다. 이로 인해 삶의 근본적인 부분에서 변화를 겪고 있는 개인으로서 처음엔 남태령을 기록하고 싶다는 들뜬 욕망, 호기심이 있었고, 그 바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기록해야만 한다는 무거운 의무감, 불안감 같은 것으로 변했다. 작업을 시작하겠다 선언하자마자 비슷한 뜻을 가진 분들이 찾아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알고보니 이런 전환을 겪은 사람이 나 하나 뿐만이 아니었다. 꽤 많은 사람들이 남태령에 다녀온 이후, 혹은 남태령 대첩 소식을 접한 이후, 자기도 모르는 사이 본격적인 “말벌시민”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거쳐 광장을 지키고, 행동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직접행동 민주시민으로 적극 활동하고 있었다. 남태령 심포지엄은 이 기획의 일부가 실현된 자리이고, 이번 아카이빙 심포지엄은 그 첫 시작을 알리는 자리다. 남태령이 왜, 어떻게 기록되어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답하며 광장과 시민연대, 민주주의에 대한 탐구를 지속가능성의 영역에 두고 이어가 보려 한다.

남태령 대첩 타임라인의 재구성을 통해 훑아보는 남태령이 가능했던 지점들

최별(남태령 심포지엄팀/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석사과정)

1. 들어가며

이 글은 완성된 연구의 발제가 아니며 프로포절의 프로포절 느낌에 가깝다. 페미니스트 인류학도로서 물리적 광장과 트위터, 유튜브 등 온라인 광장이 중첩되며 형성되는 현장에 흥미와 동시에 해석의 갈증을 느꼈다. 과거 광장에서는 SNS가 이렇게까지 기능하지 않았다. 나 자신이 현재 광장 국면에서 트위터라는 채널을 통해, 어찌보면 최초로 광장에 접근하는 경험 그리고 이를 통한 앎을 확보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명박 때는 ‘정병 퀴어 페미’ 여서 골방에 있었고, 박근혜 때는 여성단체 활동가여서 단체 활동에 바빴다. 따라서 놀라울 정도로 ‘고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보면 굉장히 새롭게 광장에 접속했으며, 그럼으로써 (단체-조직) 활동가, 연구자, (개인) 시민이라는 복합적 정체성을 오가고 번역하며 낯섬을 보유하기 적합한 위치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반대로 질적으로 복합적 층위를 지닌 이번 현장에 적합한 방법론을 훈련받거나 선행연구를 마친 상태가 아니기에 본 발제는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 및 자료 파편의 나열 수준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 글은 현장에서 참여관찰하며 감각적, 정동적으로 마주한 순간들을 표집한 일종의 필드노트, 혹은 아카이빙 사례 제시 및 방향 제안에 가깝다.

남태령 심포지엄(이하 심포지엄) 2부 세션의 기획자로서 본 발제의 발전 방향에 대한 몇 가지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다. 발제 3에서 해은 님이 이공계열 전문가로서 SNS 연구에 접근한 시도와 병치되어 사회과학 연구와의 상호 협업과 차이의 지점들이 발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철학 분과에서 훈련받은 인문학 연구자이기도 한 향연은 남태령 이후 현장을 대표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언어화하는 실천을 해왔다. 나는 이 과정에 동행하면서, 인문학의 메타적이고 보편적인 언어가 역설적으로 빚어내는 ‘선동적’ 힘을 실제로 목격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학문 언어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이 곧 사회를 경험하고 상상하며 변화시키는 다양한 방식들과 결들을 보존하는 일이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이러한 통찰을 남태령 심포지엄팀(이하 남포지엄팀)의 기조로 이어나가하고자 하였다. 남포지엄팀의 작업은 오히려 완벽하게 훈련받은 연구자가 아니기에 시도할 수 있었던 측면이 있는데 1월에 사전 네트워킹 모임 식으로 개최한 <연구자 집담회> 및 <12.03 비상계엄 아카이빙 단위 미팅>도 그러했다. 연구자 집담회의 경우 2분이라는 파격적인 시간 제한을 두고 박리다매 형식으로 남태령 관련 연구들의 프로포절 필리버스터를 한 무모한 시도였는데, 경쟁과 고립이 심화된 연구의 장에서 이례적인 장이었다는 긍정적인 참여자 피드백을 받았다. 이는 집담회를 위해 임시적으로 개설한 오픈카톡방에 여전히 참여자들이 모여계시고 새로 초대받아 들어오시는 분들 또한 계시다는 사실로도 드러난다. 나는 심포지엄 준비 과정에

서 연구자들이 서로 연결되고 공유하고 나누며, 공동의 비전을 평등하게 토론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순수하고 절실한 ‘앞에의 의지’를 보존하고 있음을 체험하였다.

나는 이것이 남태령이 열어준 무수한 가능성들 중의 하나라고 평가한다. 심포지엄을 준비하며 가장 놀라웠던 것은 마치 남태령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냅다, 누가 받을지 어떻게 이용될지 전혀 계산하지 않고 후원했던 것처럼 너무나 우호적으로 환대하는 도움들을 많이 받았다는 점이다. 한국외대 기록학과와 연결해주신 김동령 감독님을 비롯, 기록학 연구자 선생님들과 1부 집담회에 와주신 단위들, 연구자 집담회 참여자 분들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인상깊은 경험들과 만남들이 있었다. 각자가 기여할 수 있는 복수의 고유함을 촘촘한 하나의 그물로 엮어나감으로써 중요하게 기억, 기록되어야 할 분석 지점들을 아카이빙-큐레이션-외화하는 메타적인 작업들이 계속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들은 하나의 중심일 필요가 없고 하나의 기조일 필요도 없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이러한 복수의 작업들이 더욱 충만하고 폭발적인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도록 도모하는 새로운 차원의 정치적 기획이다. 지금 우리에게 이룰 수 있는 장소들이 필요하고 남태령 심포지엄 역시 그 단초이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미 지금의 광장에서 다음 세대의 정치를 시작했으며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2. 남태령 대첩 타임라인의 재구성

‘남태령 대첩’은 1차적으로 2024년 12월 21일 낮부터 22일 밤까지 이어진, 12.3 비상계엄과 반농업 정책에 저항하는 ‘전봉준 투쟁단’을 중심으로 한 트랙터 투쟁과, 이에 연대한 시민들이 “기획되지 않은” (향연), ‘우발적인’ 광장을 형성하여 트랙터 파손, 신체 상해, 십중 차벽 설치와 여경 기동대 출동 등 폭력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강제 진압을 목전에 앞둔 상황에서 ‘평화 시위’와 ‘정체성 소개’를 필두로 한 자유 발언을 통한 밤샘 대치, 이튿날까지 이어진 기자회견과 집회를 통해 마침내 경찰 철수를 이끌어냄으로써 관저 앞까지 평화로운 행진 및 마무리 집회, 트랙터 복귀를 이루어낸 사건을 일컫는다. 아울러 이에 그치지 않고 “남태령에서 온 소녀”들의 연대가 계속 확장되어 전국장애인철폐연대, 동덕여대, 민주노총 등 시민 연대를 저해해온 운동권, 퀴어/트랜스젠더,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수평 폭력으로 만들어진 ‘순수한 학생/시민’, ‘생물학적 여성’, ‘자국 국민’ 등 민족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 환원주의적인 내집단 의식에 균열을 내며 연대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새로운 주체성을 대동시켜 온 현상을 일컫는다.

본래 발제의 기획 의도는 ‘남태령 기록보관소’ 트위터 계정(@namchiving)(이하 남카이빙)에 리트윗된 천건 이상의,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는 남태령 관련 트윗을 작성일자, 관련 행위자, 주요 상황 및 키워드, 작성자, 리트윗/좋아요/북마크/조회수, 트윗 유형(원트/인용트) 및 형태(단독/타래. 주요 타래의 경우 넘버링), 첨부파일 등의 항목으로 엑셀화하여 남태령 대첩의 디테일한 타임라인을 재구성하고 관련 요소들을 역추적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엑셀 기반 시간선으로 리트윗을 정렬하고 최종적으로 이미지 파일을 포함해 이를 백업함으로서 트위터 아카이빙을 완성하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었다. 외대 기록학과 자문 결과 현재로서는 트위터 서비스가 제공하는 웹 페이지 백업이 최선으로 파악되며, 아카이브란 일종의 ‘박제’로 기록이 생산되던 시점의 움직임까지 기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한계 속에서 관련된 서술적 보완이 필수로 요청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따라서 상기 작업을 포함, 자유 발언 녹취와 서술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단행본 형태의 남태령 아카이빙 책자 원고를 완성하는 것을 장기 목표로 세웠다.

허나 특정 계정이 직접 생산한 것이 아닌 리트윗 된 다량의 트윗을 위와 같은 세부 정보까지 포함하여 엑셀로 일괄 추출하기는 쉽지 않았다. 따라서 내가 택한 방식은 수동으로 일일이 복사-붙여넣기를 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트위터의 날짜 기반 상세 검색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더 어려움이 컸다. 이러한 연유로 일단 위와 같은 작업에서 생각했던 만큼 유의미한 분석 지점이 도출될 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2024년 12월 20일부터 22일 사이 향연(@symposion_)의 타임라인 전체를 포함하는 백 오십여 건 정도를 샘플로 작업하였다. 본 발표 이후 관련 개발자들의 피드백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효율적인 방식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아울러 트위터 뿐만이 아닌 여타의 커뮤니티의 게시글에 대한 동시 추적도 분석을 풍부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며 트위터 내에서도 1,000건 이상 리트윗 된 트윗들의 분석 등을 가능한 후속 작업으로 언급해둔다. 남태령 대첩의 시작은 포괄적으로 보자면 향연의 “상여 투쟁” 관련 트윗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여기서는 위와 같이 한정된 기간에 국한하여 이야기하겠다. 또한 트위터에 게시된 남태령 관련 모든 트윗이 아닌 남카이빙 트위터 계정 리트윗에 한정한다.

2024년 12월 20일 오후 4시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페이스북 공식 계정에 서울 경찰청에서 서울 진입 제한을 통고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오후 6시 트위터에는 이를 캡처한 이미지와 함께 “햇병날것같음” 이라는 트윗이 올라왔다. 6시 15분 향연은 이를 리트윗하며 전농의 법적 행정적 대응에 대한 온라인 연대를 골자로 하는 첫번째 타래를 이어나갔다. 여기에는 비상행동과 진보당 등의 연대 성명, 전봉준 투쟁단(이하 투쟁단) 대국민 호소문과 집회 보장 요구 국민 신문고 민원, 유튜브 라이브 링크가 포함된다. 이 타래는 21일 오전 11시 27분 투쟁단이 남태령 전방 4km를 앞두고 있음을 알리며 마무리된다.

143건의 샘플 중 타래 넘버링은 15번까지 이어진다. 여기에는 현장 상황을 알리는 향연의 타래 뿐만 아니라 자유 발언을 실시간으로 기록한 타래 등도 포함된다. 타래 기능의 활용은 향연의 트윗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향연의 트윗이 시민 연대로 이어진 파급력이 있을 수 있었던 요인에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타래 기능을 활용해 짜임새 있게 현장 상황을 알리고 인용 기능 등으로 트위터 흐름에 적절하게 개입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는 단순히 ‘트위터’ 라는 기술적 활용을 넘어 향연이라는 개인에게 온오프라인에서 체현된 현장의 쟁점을 본능적,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140자의 단문과 사진, 쇼츠 영상에 녹여내는 능력을 반영한다.

리트윗과 좋아요 수, 북마크 수, 조회수 정렬에 따른 트윗의 순위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리트윗이 가장 많이 된 트윗(38,000회)은 21일 오후 11시 13분 경찰의 요청으로 국민 신문고가 중단되었다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트랙터 복귀 영상(29,000회), 트랙터 전복 영상(28,000회), 유리창 파손과 폭력 행사 영상(21,000회)가 뒤를 잇는다. 시민들의 연대는 분명 경찰에 의한 폭력에 대한 분노, 현장에 있는 농민들과 동료 시민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에서 촉발된 것이다. 향연은 이를 일컬어 “한 사람이 다침으로써 우리 모두의 살이 찢기는” ‘초공감’, 자아와 타자 간의 구별을 넘어서 ‘동기화’로 개념화한 바 있다. 반면 위와 같은 계열의 트윗에 마찬가지로 다수의 좋아요가

찍힌 것과 별개로 남태령에 “난입”한 ‘응원봉 부대’ 2030여성’ 시민들과 마주한 농민들의 기쁨과 당황, 눈물과 웃음, 서로가 아는 대중 가요와 농민가 등 민중 가요를 나누며 교류하는 장면들에 상당수의 좋아요(15,000여회)가 찍혔다. 북마크의 경우 트랙터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복귀 관련 트윗(1,000여회)을 눈여겨볼 만하다. 트위터리안들은 왜 특정 정보성 트윗이 아닌 이러한 트윗을 북마크함에 담아두었을까? 고통을 감수한 치열한 투쟁의 풍경은 드물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의 정동과 장면은 현대사적으로 이례적이고 희귀하다. 나는 시민들이 바로 이러한 정동에 감응하였으며, 단순히 ‘차벽이 열린’ 물리적 결과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한다는 느낌, 필요한 물자와 사람들이 필요한 자리에 오고 있고 올 것이라는 느낌, 현장에 있던 유튜브 라이브를 보고 있건 남태령이 고립되지 않고 외부와 연결되어 누구도 포기하거나 잃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소망했던 누구도 다치지 않고 귀가하는 일이 여기서 비로소 이루어졌다는 느낌 등이 복합적으로 얹혀있었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태령’이라는 호명 은 시장경쟁도 국가의 부귀영화도 아닌 바로 이러한 순간을 모두에게 일상으로 보장하는 것이 사회의 본질이며 시민들이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박탈당해 온, 스스로 염원하는 줄도 모르고 서로의 안부를 염원해왔음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실천으로도 읽힌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조회수가 높은 트윗 중 눈에 띄는 것은 22일 새벽 2시 31분 전봉준 투쟁단이 길 위에서 늦은 식사를 하는 이미지가 담긴 트윗(279,000회)이다. 비상행동 시민참여팀 주최로 향린교회에서 개최된 ‘남태령 뒷풀이’ 참여자 발언 중에는 이 사진을 보고 참지 못하고 현장으로 달려갔다는 증언이 있었다.

트윗의 빈도의 경우 21일 오전 9시 5분 전농 유튜브 라이브 TV 송출을 알린 이래, 22분 라이브로 트랙터 전복을 보고 캡처하여 알리는 트윗이 있었다. 이는 두 번째로 조회수가 높은 트윗이다(4,441,000회). 두시간 뒤 11시 26분 해당 트윗을 인용하며 전농 후원을 요청한 트윗 역시 높은 조회수(1,472,000회)를 기록하였다. 이는 시민들이 20일 경찰청 통고 이후 투쟁단을 주시하고 있었으며 21일 오전 해당 사건 이후로 농민들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염려하며 연대의 방법들을 모색하고 준비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21일 오전 11시 27분 남태령 전방 4km 트윗을 포함하여 밤 11시 44분 모여든 시민들에 대한 감사와 전농 사무총장의 “떠나시라고 할 수도 남아달라고 할 수도 없는” 복잡한 심경을 담은 발언에 대한 트윗이 한 그룹을 이룬다. 그날 낮 12시 26분 경찰의 강제 해산 명령에 대한 트윗이 올라왔으며, 뒤이어 오후 1시 20분 경찰에 의한 트랙터 유리 파손 및 폭력 행사 영상은 가장 높은 조회수(4,913,000회)를 기록했을 뿐더러 높은 리트윗 수(21,000회)와 좋아요 수(8,500회), 북마크 수(836회)를 기록했다. 향연은 이러한 경찰의 행진 방해에 대하여 1시 30분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하고 연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며 연대를 독려했다. 시민들은 동작대교, 사당, 한남대교 등에서 불법 강제 진압을 제보하였고 라이브를 계속 시청하며 주요 장면을 캡처, 트윗하는 식으로 이러한 흐름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오후 3시 18분 비로소 남태령에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하 전여농) 회장 양옥희 회장의 결의 발언이 있었다. 투쟁단은 농민가를 제창하며 집회를 시작하였고 한남대교에 있던 대오도 합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3시 46분 경찰은 남태령 사방에 차벽을 설치하였다. 이후 평화로운 발언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차량을 양방향으로 통제하며 교통 체증을 유발하였다. 저녁 6시 경부터 집회는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비상행동

집회를 마친 시민들이 합류하였고 정당 정치인들도 도착하였다. 간이 무대에서 농민들과 시민들은 여성/농민으로서의 삶 그리고 농민의 노령화와 여성화, 30년째 동결인 쌀값, 농민의 딸로서의 발언 등을 이어나갔다. 온라인 항의 행동도 활발하여 밤 11시 경 경찰의 부당한 국민 신문고 종결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11시 26분 트윗에 따르면 “80% 이상이 2030여성” 이었고 “차빠라” 고 외치는 여성들과 방패를 내세우는 경찰들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었다.

트윗은 새벽 2시 경찰의 강제 진압이 본격화되며 재개되었다. 2시 26분 투쟁단은 긴급회의의 결과를 공지하였고 현 위치를 지키며 날이 밝아 시민들이 올때까지 평화시위를 이어간다는 결정을 발표하였다. 현장 접근 경로 및 후원처가 알려짐과 동시에 후원이 폭주하기 시작하였다. 2시 49분 트윗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언급하고 있고 2시 52분 난방 버스 대절 후원이 리트윗되었다. 이어 하원오 총대장/전농 의장님의 “동지라고 불러도 되겠지요?” 영상이 올라온 바 있다.

3. 남태령에서 주목해야할 지점들

나는 개인사적으로, 국가에 종속되기를 거부하는 페미니스트이자 퀴어인 ‘이등시민’이었기에 제도화된 국가나 법, 정당 정치를 믿지 않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경계하도록 훈련받았다. 그런데 이번 현장에서 내가 느낀 것은 모종의 ‘우리’에게 ‘남태령’이라는 여권이 주어졌고, 이 표징이 여러 층위의 경계들을 평화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역능을 발휘해 남태령의 이름으로 연대하는 시민들을 보호하는 소속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나는 남태령이라는 현상/현장에서 첫 번째로 이 지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자신이 가진 가장 빛나는 것”을 투쟁의 도구로 꺼내놓아도 조롱받거나 평가절하되거나 몰이해받지 않고 그것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공동체의 형성은, 그곳에 연루되어 소속감을 느끼게 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즉 ‘다른’ 정치를 상상하고 헌신하도록 추동했다. 나는 남태령에서, 어떠한 정체성으로 제한되는 민족주의적이고 파시즘적인 역동이 특정한 계기들이 접합되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작동을 중지했다고 해석한다. 혹은, 그곳에도 여전히 그러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회하고도 남는 “다른 종류의 에너지” (장혜영, 연구자 집담회 기록 발췌)가 그러모아지고 흐르기 시작했다고 말하고자 한다. 나는 이 때 공동체가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배제된 자들의 공동체” (향연)가 형성되어 일종의 “망명 정부” (박경석, 플랫폼 C 발표)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지점에 주목한다. 이것은 정치사적으로 늘 풀리지 않았던 딜레마, 즉 정체성 인정의 정치와 차이의 정치가 상호 공존할 수 없는 것으로 상상되었던 이론적 프레임을 무너뜨린 학술적으로 중요한 현상이다. 이를 일컬어 향연은 “이 땅에 민주주의가 다시 태어났다” (플랫폼 C 발표)라는 아포리즘적인 문장으로 형상화하기도 하였다. 다양한 정체성 하나하나와 그 디테일을 “알아두(트윗)”는 것이 곧 차이의 자유주의적 해체로 귀결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양한 ‘깃발’ 아래 투쟁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고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아직 자료를 시범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정도의 단계이기에 명료하게 쓸 수는 없다. 다만 남포지엄팀이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며 발전시키고 있는 가설들, 질문들을 풀어 써보려고 한다.

3.1 담론화 과정에서 ‘조직화’ 기조의 굴절

남태령 이후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다. 정당, 노조, 시민단체, 학술행사 등 다양했다. 내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각각의 행사들은 남태령을 이해할 수 있는 시사점을 주는 동시에 ‘내가 겪은 남태령’ 혹은 ‘내가 이어나가고 싶은 남태령’과 조금씩 어긋난다는 이질감을 주었다(애초에 그런 해답은 존재하지 않으며 끊임없는 갱신의 과정, 덮어쓰기와 고쳐쓰기의 퇴고의 과정만이 계속해서 이어지리라라는 예감이 든다). 위와 같은 자리들은 공통적으로 남태령을 호명하고 회자하면서 아직 말로 또렷하게 포착할 수 없는 무언의 느낌을 공통적으로 발화하고 있었다.

반면 두드러지는 지점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정당과 노조, 시민단체의 경우 남태령 연대를 넘어 각각의 의제로 연대의 물결이 이어지기를 촉구하는 동시에 이것이 박근혜 때와 마찬가지로 선거 국면으로 봉합되거나 휘발될 것을 우려하였다. 발화 및 담론화의 자리들에서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세력화’ ‘조직화’ 등이 지속적으로 거론되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이러한 방안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측인 노조가 한편으로는 조직에 성공하고, 한편으로는 실패한 사례에 놓여있다. 노조와 남태령에서 온 시민들의 만남은 “말벌 동지”라는 희한한 호칭을 창안하였다. 이 이름은 “말벌 아저씨 동지”의 줄임말이자, 말벌 아저씨 그리고 동지의 합성어이다. 처음에 노조는 시민들을 농성장에 초대하거나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전통적인 방법의 운동을 실천했다. 그리고 현재, 노조와 시민들의 접촉은 “말벌 동지”라는 이름 아래 각자의 고유한 정체성과 소속, 연대의 방식을 혼종적인 채로 보존하는 방식으로 변형되었다. 지혜복 동지 농성장에서 활동가와 시민 연행이 있는 뒤 이어진 항의 집회와 세종호텔 고공농성장, 소현숙 박정혜에 연대하는 오펜칼 희망뚜벅이 마무리 집회, 거통고 금속노조, 동덕여대 집회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말벌 동지”의 이름이 불려졌다. 이제 노학 연대가 아니라 “노동자-말벌 연대, 노말 연대”라는 선언도 이어졌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이 말벌들이야말로 곧 소외되고 착취당해온 청춘들을 고하며 그들의 청춘이 청춘이기에, 부정했던 자신의 청춘도 청춘으로 꺼안게 되었다는 요지의 연대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노조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남태령 초반 전농과 전여농을 포함한 각 단체의 활동가들과 정치인들은 각자의 조직-의제로 남태령 시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실천들은 어떤 부분에서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 굴절하기도 하였다. 나는 이러한 굴절의 지점들과 과정들이 상세히 주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3.2 트라우마의 행위성

남태령은 이례적으로 평화로운 “승리”로 표상되며 이러한 승리를 재현할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으로 사용되어왔다. 나는 이를 조금 비틀어 써보고자 한다. 남태령은 경찰 국가라는 공권력을 상대로 승리를 쟁취했다고 쓰여질 수 있는 한편, 구조적으로 주체들에게 내재화 된 차별과 배제를 통해 정치적 연대를 성공적으로 통제해온 국가 및 자본 통치의 ‘정

상' 상태가 일시적으로 마비되었다고 쓰여질 수도 있다. 이는 국가를 재생산하지 않는 방식의 운동과 언어화의 모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백남기 농민 사후 그의 정신을 잇기 위해 조직된 전봉준 투쟁단은 남태령에서 연행될 각오를 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남태령에서 시민들은 “차빠라” 라고 구호를 외치는 동시에 ‘차벽’이 열리는 순간을 실제로, 그리고 처음으로 목격했다는 것에 감격했다. 즉 시민들은 차를 빼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을 동시에 체현하고 있었다. 시민들은 차벽이 열리지 않고 폭력적인 강제진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과거의 경험, 트라우마에 기반한 판단으로 바로 그 폭력적인 현장에 달려갔다.

나는 이 지점에 두번째로 주목하고자 한다. 우리가 함께 몸으로 “기억하고 있는” (호림, 플랫폼 C 발표) 트라우마는 기존 트라우마 연구가 비판해온, 병리화 및 치료, 회복의 사이클로 포섭되는 방식이 아닌 생성적이고 창발적인 방식으로 적극적인 정치적 저항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했다. 상기한 남태령 연구자 집담회에서 참여자들에게 가장 큰 공감을 이끌어냈던 주제는 남태령에서의 ‘돌봄’에 주목하는 것이었다. 남태령은 돌봄이 과거, 혹은 현재와 미래의 고통과 떨어질 수 없음을 증거한다. 고통의 일방적이고 수동적인 재현이 돌봄에의 역량을 억압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돌봄의 역량이 제도화된 억압을 초과하며 언제 어디서나 출현할 수 있음이 현실화한 장소가 남태령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다. 남태령에서 돌봄의 역량에 대한 억압을 중단시킨 요소들과 그것들의 결합 양태는 어떠했는가? 소위 갈라치기와 싸이버불링, 혐오와 차별 그리고 공포가 국가와 자본이 의도한 ‘정상적’ 상태라면, 예외적으로 ‘비정상적’이고 반동적인, 그리하여 저항적인 무차별적이고 무조건적인 돌봄의 연대를 출현시킨 요소들은 무엇이었는가? 여기에 주목함으로써 ‘우발적’ 시민 연대를 가능케 한 ‘우연하지 않은’ 실천들의 역사적 계보를 써나갈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남태령이라는 사건의 내적 필연을 구축함으로써 미래라는 역사적 기획(김주희)을 도모할 것이다. 나는 남태령 아카이빙의 중요한 정치적, 실천적 함의 중의 하나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남태령 아카이빙은 ‘소수자들의 역사쓰기’ 작업으로 의미화될 수 있다. 나는 남태령의 핵심이 우발적인 연대를 지속가능하게 바꿔내는 조직적 토대를 만드는 것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오히려 나는, 남태령의 핵심은 남태령이 ‘우발적’으로 인식된다는 바로 그 지점에 있다고 주장한다. 분명히 현존했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남태령이라는 정치적 연대가 강력한 정동적 전염으로 뻗어나가고 있음에도 왜 그 기원과 뿌리는 쉽사리 인식하거나 포착할 수 없는 것인가? 나는 여기에 인식되지 않음으로써 인과라는 지배적인 시간성을 박탈당한 소수자들의 반동적 시간성, 즉 “반딧불의 잔존” (조르주 디디 위베르만)이 놓여있다고 해석하고자 한다. 중요한 것은 들리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구축하는 것이다. 남태령의 목소리에 정치적 역량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결사체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개혁안은 무엇인가? 극우 남성들의 폭력은 사회의 중심적인 흐름으로 재현되는 반면, 왜 그것이 소수자들에게 가장 먼저 실제하는 위협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퀴어, 장애인, 노동자, 농민, 이주민과 난민이 모여든 광장은 ‘우발적’인 현상으로 치부되어 “응원봉 부대”에 대한 칭송에 그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고민이 요청된다.

참고문헌

김주희(2025). “동시대 ‘여성’ 붕괴, 움직이는 몸들의 ‘템플’ ” . 문학동네, 122호, 112 - 123p.

조르주 디디-위베르만(2012). 반딧불의 잔존. 길

플랫폼 C(2025/1/20). 퇴진광장의 목소리를 넓히는 사람들 발표문.

2부 남태령을 기록하다 발제 3.

플랫폼 밖 아카이브의 의의: 남태령 연대가 SNS 사회운동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

김해은 (스위스 로잔공대 석사 졸업)

개인 홈페이지 www.haeeun.kim

남태령 트위터 아카이브 프로젝트 홈페이지 <https://20241203archive.kr/namtaeryeong>

배경 및 연구 의의

-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회운동의 한계
 - 온라인 상 논의와 현실세계의 조직력은 별개 (dualism)
 - 효능감에 비해 정치적 효과는 미미 (slacktivism, clicktivism)
 - 가짜뉴스와 혐오에 취약, echo chamber와 filter bubble에 갇히기 쉬움
 -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 기록을 확인하기 어려움. 강한 휘발성.
- 계엄 정국, 남태령, 소셜미디어
 - 현재 소셜미디어 환경을 감안하면 믿기 어려울 정도의 연대
 - 남태령의 경우 트위터와 유튜브의 역할이 특히 두드러지나, 그 당시 온라인에서 마주한 경험을 기록하기 어려움.
 - 트위터를 통한 사회운동에 대한 사전연구 대부분은 키워드나 해시태그를 검색해 데이터 수집 → 어떤 논의가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순간에만 집중
 - 내 타임라인에 남은 흔적만으로는 그 당시 내가 본 것으로 돌아갈 수 없음.
 - 소셜미디어 플랫폼에만 남긴 데이터는 소실되기 쉬움.

⇒ 플랫폼과 독립된 아카이브를 통해, 시민들의 트위터 기록을 모아붙여서, 트위터를 통해 남태령과 연결된 사람들이 본 것을 재현하고 보존하고자 함.

아카이브 구축 과정

- 데이터 수집: 참여자 직접 모집 후 직접 개인 백업 파일을 전달받음.
 - 2022년 이전에는 플랫폼의 공식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자유롭게 얻어내고 처리할 수 있었으나, 머스크의 트위터 사유화 이후 유료화됨. (현재 필요한 기능을 위해선 월 5000 달러. 사실상 불가능)
 - 사용자들이 직접 받을 수 있는 개인 트위터 백업 데이터를 전달받는 것으로 우회
 - 구글폼으로 개인 트위터 백업 절차 안내, 연락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특정 구간 트윗 내용이 공개 및 배포될 수 있음 안내하고 연구참여동의 받음.
- 데이터 처리: 12월 20일-25일 사이에 발행한 트윗만 남긴 후 모아 시간 순 배열
 - 민감한 정보를 많이 포함한 파일이기 때문에 특정 기간만 관찰. (사전 고지 함.)
 - 21-22일의 트윗 사용 양상이 평소와 어떻게 달랐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유 구간 설정.
 - 트윗 내용, 작성자 아이디 및 닉네임, 트윗 고유 식별자(원문 링크), 작성 시각 확보 → 각 참여자가 제출한 파일을 전처리한 후 합쳐 시간 순으로 배열
- 구현 및 공개 방식:
 - 플랫폼 이용약관을 들여다보아야 함.
 - 명시적으로 허용: API를 통해 수집한 트윗의 원문 링크 혹은 식별자 공유, 임베드 기능 사용을 통한 내용 공유
 - 명시적으로 불허: 크롤링 등 API가 아닌 방식으로 데이터 수집,
 - 공공 목적의 아카이브 사이트들에서 트위터 스냅샷을 남겨왔으나, 최근 들어 막힘.
 - 하지만 남태령 아카이브의 경우 각 참여자의 백업 파일을 직접 받아서 타임라인을 재구성.
 - 아주 반기지도 않겠지만, 아직은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됨

⇒ 비영리 목적의 Fair-use, 참여자의 동의와 함께 얻은 파일로 작업했다는 점 강조,
트윗 원문 링크 남겨두는 방향으로 모험해보기로 함. 연구자 개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공개

향후 방향 예시

- 지속적 아카이브 관리 - 참여 독려, 홍보, 사용성 개선, 핵심 사건과 함께 배치 등
- 정량분석 - 트윗 작성 양상, 시계열로 트윗 텍스트 감정
- 트윗 원문 보존: 하버드대학교 도서관 제공 perma.cc

2024년 12월 20-21일 남태령 ‘대첩’, 어떻게 기록할까?

최효진 (한국외대 정보.기록학연구소 책임연구원)

2부 발제자들이 강조했듯이, 2024년 12월 20일과 21일에 발생한 남태령 ‘대첩’, 즉 전국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는 한국 현대 민주주의 운동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만한 사건이다. 이 시위는 전통적인 집회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한 시민 연대와 조직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온라인 중심의 사회운동은 정보의 휘발성과 왜곡의 위험이 크며, 기존 기록 방식만으로는 온전히 보존하기 어렵다. 따라서 남태령 대첩의 기록 및 연구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플랫폼 기반 아카이브와 독립적 아카이브의 역할과 한계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제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남태령 대첩의 기록 방법과 접근 방식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남태령 대첩 기록 방식의 두 가지 접근법

- 플랫폼 기반 아카이브: 디지털 시민사회의 집단적 기억 형성

김후주 선생님이 언급했듯이, 남태령 대첩은 트위터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조직되고 확산되었으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록을 남기는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 실천의 연장선에 있다. 현재 남태령 아카이빙 팀은 트위터 타임라인, 유튜브 라이브 영상, 자유발언 녹취 등 다양한 디지털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건의 의미가 지속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접근법의 장점은 민주주의 운동의 역동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시민들이 직접 경험을 기록하고 공유함으로써 사건의 의미를 확장할 수 있으며, 단순한 역사적 자료 축적을 넘어 사회적 기억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에서 사건이 지속적으로 회자되며 운동의 영향력이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몇 가지 한계도 존재한다. 첫째, SNS 기록은 휘발성이 강하다. 트위터와 같은 플랫폼은 알고리즘에 의해 정보가 쉽게 사라지거나 검색이 어려우며, 유튜브 라이브 영상도 삭제될 위험이 있다. 둘째, 디지털 기록은 플랫폼 기업의 정책 변화에 따라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트위터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API 접근이 제한되면서 데이터 수집이 어려워질 수 있다.

- 플랫폼 밖 아카이브: SNS 사회운동의 한계를 극복하는 독립적 기록

김해은 선생님은 플랫폼 중심 기록 방식의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하며, 남태령 대첩의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독립적인 아카이브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트위터 데이터를 플랫폼 내에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저장소에서 기록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시민들이 자신의 트위터 백업 파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플랫폼 밖 아카이브의 주요 장점은 기록의 안정성과 독립성이다. 플랫폼 정책 변화나 기업의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보존할 수 있으며, 연구자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사건을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또한, 트위터에서 단편적으로 소비되는 정보를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고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면 사건의 전개 과정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플랫폼 밖 아카이브 역시 몇 가지 과제에 직면한다. 첫째, 시민들의 자발적인 데이터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참여율이 저조하면 기록의 완전성이 떨어질 수 있다. 둘째, 트위터와 같은 SNS 기록을 독립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법적·윤리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트위터의 이용약관에 따라 특정 방식의 데이터 수집이 제한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2. 두 접근법의 상호보완 가능성

플랫폼 기반 아카이브와 독립적 아카이브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남태령 대첩을 기록하지만,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플랫폼 기반 아카이브는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기억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독립적 아카이브는 이러한 기록을 장기적으로 보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두 방식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결합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제안될 수 있다. 먼저, 플랫폼 기반 기록과 독립적 보존의 연계와 관련한 사항이다. 트위터, 유튜브 등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를 독립적인 저장소에 보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SNS에서 남긴 기록을 정기적으로 아카이빙하여 플랫폼 정책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기록이 조화롭게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플랫폼 기반 아카이브는 시민들의 경험과 정서적 반응을 기록하는 데 강점이 있고, 플랫폼 밖 아카이브는 사건의 구조적 분석과 정량적 연구에 유리하다. 두 방식이 함께 활용될 때, 사회운동의 과정과 의미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적·윤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플랫폼 기반 아카이브는 SNS의 이용약관을 준수하며, 플랫폼 밖 아카이브는 데이터 제공자의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개인정보 보호와 연구 윤리를 고려한 데이터 처리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4. 결론: 남태령 대첩 기록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략

남태령 대첩 아카이빙은 단순한 사건 보존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 사회운동 기록 방법론을 실험하는 중요한 사례이다. 이를 장기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기록학적 접근, 법적·윤리적 고려, 지속 가능한 보존 전략, 연구 및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즉, 남태령 아카이브가 단순한 데이터 저장소가 아니라, 역동적인 민주주의 기억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록 보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1) 기록학적 접근과 메타데이터 설계

남태령 대첩 아카이빙이 단순한 자료 수집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을 반영하는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기록학적 원칙과 표준화된 메타데이터 체계가 필요하다.

• 맥락 중심의 아카이빙

단순한 데이터 보존이 아니라, 남태령 대첩의 발생 배경, 참여자들의 역할, 사건의 전개 과정, 외부 반응 등 맥락을 설명하는 기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록을 개별 트윗, 게시물, 영상 단위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연대기적 흐름을 반영하는 구조로 정리해야 한다.

• 메타데이터 표준화 및 서술 방식

ISAD(G)(국제 기록물 기술 표준), Dublin Core, PREMIS(디지털 장기 보존용 메타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구조화된 메타데이터를 설계할 것을 권고한다. 각 기록물에는 생산자, 생성 시점, 내용 요약, 기록 매체(SNS, 영상, 텍스트 등), 저장 위치, 접근 권한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기술적 아카이빙 전략

기존 아카이빙 사례(예: 5.18 민주화운동 아카이브, 천안문 사건 디지털 기록)와 비교하여, 남태령 대첩에 적합한 아카이빙 방법론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기록으로 생산되는 남태령 관련 기록 특성에 따라 트위터 API와 유튜브 영상의 타임라인 기반 매핑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자가 사건 발생 흐름을 따라가며 아카이브를 탐색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2) 플랫폼 기반과 독립 아카이브의 균형

남태령 아카이빙은 트위터·유튜브 등의 플랫폼 기반 기록과 독립적인 데이터 저장소(플랫폼 밖 아카이브) 간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디지털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휘발성 있는 기록임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데이터 백업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즉, SNS포스트나 유튜브 동영상 등은 무형적 기록이자 독립적 저장소에 이중 보관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시민들이 기록을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기증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3) 기록물의 신뢰성과 출처 명확화

SNS 기반 기록은 쉽게 조작될 수 있으므로, 수집된 자료의 출처와 진본성(authenticity)을 보장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트위터나 게시글의 진본성을 유지하기 위해, 디지털 서명(digital signature) 또는 해시값을 생성하여 위변조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거나, 수집 당시의 화면 캡처와 원본 URL을 함께 저장하여 출처를 명확히 하는 방안 등이 있다.

(4) 법적·윤리적 고려 사항

SNS 기반 사회운동 기록을 보존할 때는 법적·윤리적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 및 동의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트윗과 게시글을 보관할 경우, 데이터 제공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트위터 백업 파일을 수집하는 경우, 사용자가 제공한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투명하게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공개된 게시글이라도 원저작자의 삭제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는 정보 삭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트위터와 유튜브의 이용 약관을 검토하고, 공정 이용(Fair Use) 원칙에 따라 연구 및 기록 보존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 가능하면 CC-BY(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권 표시) 형태로 기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사용자들에게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5) 장기적 운영 방안 마련

남태령 아카이브가 일회성 프로젝트로 끝나지 않고, 후속 연구 및 시민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장기적 보존 전략이 필요하다. 기술적으로는 2중 혹은 3중 사본 보존 체계를 마련하고, 디지털 파일은 장기보존용 파일 포맷으로 변환하여 저장해야 한다. 수집 차원에서는 남태령 아카이브가 단순히 데이터 저장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형 아카이브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의 기억을 남겨주세요" 캠페인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사건 당시의 경험을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12월 20일, 21일에 참여한 시민 인터뷰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사회운동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레거시 미디어의 부재, 시민이 주체였던 남태령 영상기록을 어떻게 볼 것인가

김 동 령(영화감독)

긴박했던 남태령의 밤샘 대치 현장에 레거시 미디어의 부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대신 21일과 22일 남태령의 역사는 어디선가에서 각자 달려온 다수의 시민들에 의해 기록되었음. 특히 영상기록의 경우, 대체로 레거시 미디어는 현장에 영상팀을 보내 오랜시간 머물게 하며 촬영을 하지는 않음. 이들은 주로 현장의 하이라이트를 ‘스케치’하고자 잠시 현장에 머물렀다 떠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영상기록이라는 것이 취재기자의 정리된 브리핑을 위한 ‘그림’을 제공하는 역할에 머물기 때문임. 이러한 영상기록은 현장의 풍부한 맥락이나 감각을 전달하기 보다는, 요약된 사실이나 증거로서만 기능할 가능성이 크고 무엇보다 대상을 바라보는 카메라의 ‘시점’이 매우 모호하다는 특징이 있음. 그들이 생산한 이미지는 대체로 그 자체로 열린 해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소리언어(기자가 말하는 내용)에 종속되는 한계를 가짐. 또한 레거시 미디어가 촬영한 ‘미편집된’ 풀영상들은 실제 보도되는 몇 초, 몇 분의 분량을 제외하고는 대중들에게 공개되지 않음.

반면 시민들에 의한 남태령 영상기록들은 사건의 우발성과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시점’이 매우 개인적이고 비목적적이라는 특징이 있으며 집합적이며 동시에 산별적인 특성을 가짐. 이는 남태령이라는 단일한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에 다층적 시점을 부여하고, 서로 다른 감각, 예측하지 못한 풍부하고 입체적인 해석의 여지를 부여함. 이러한 개인의 영상기록들은, 사건을 압축적으로 요약하거나 선형적으로 재구성해 통일된 의미를 만들고 역사화하려는 욕망에 적합하지 않은 영상임. 다시 말해 ‘증거용’ 영상이 아니라 기존 미디어가 제공하지 못하는 현장의 미세한 감각과 정동을 기록한 주관적이고 파편화된 영상이기 때문에 수 많은 새로운 해석을 낳을 수 있음. 서로 다른 시점을 가진 동시다발적인 POV샷들로 구성된 연속과 불연속의 타임라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러한 영상기록을 통해 어떻게 남태령을 이해하고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 이 문제는 매우 흥미롭고 도전적인 과제가 될 것임. 이러한 시민들의 영상기록적 성격은 김후주, 최별님이 제시하고 분석하는 남태령이라는 사건의 본질적인 특성에도 잘 맞닿아 있음.

남태령의 확산으로서의 아카이빙

- 국가나 공적 기관이 생산한 기록이 아닌 시민들의 기록이 제대로 수집되고 보존되기 위해 시민사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모색하는 연대체가 필요

- 영상은 ‘원본’ 이 없다는 잘못된 생각: 시간이 흐를수록 영상의 메타 데이터가 소실될 위험
- 레거시 미디어의 기록들(상업적, 독점적, 검열적)과 본질적으로 다른 시민기록의 아카이브를 어떻게 구축하고 활용할 것인가
- 국가의 영상 아카이빙과 관련한 처참한 현황
- 죽은 역사, 무덤으로서의 아카이브가 되지 않기 위한 노력
- 분산적 기록 보존 시스템 제안
- [참고] 파리코뮌의 아카이브 : 한편으로 남태령 사건의 많은 부분들 (짧고 강렬한 시간동안 고립된 공간에서 일어난 저항, 연대, 직접 민주주의, 이상적 통치를 상상하는 즐거움 등)이 개인적으로 파리 코뮌을 떠올리게 함. 특히 근본적인 사회 개혁을 요구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긴 자유 발언내용들이 매우 인상적었고 이상적 국가를 상상하게 함. 시민과 정부의 아카이브를 창조적으로 활용한 <파리 코뮌>(2000, 피터 왓킨스 감독)이라는 기념비적인 작품 소개
- 현재와 미래가 남태령을 계속 재정의하고 소환하며 영감을 받는 것이 중요
- 남태령을 기억하고 아카이빙하는 방식 자체가 정치적 실천이 될 것임. 남태령의 기록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확장되고 해석되며, 새로운 연대의 동력을 만들어갈 것임.

토 론 문

권김현영(여성현실연구소)

1. 이 토론을 수락했을때만 해도, 차마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윤석열이 구속 되지 않게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극우의 준동이 극단적인 수준까지 발흥되었고, 이 문제가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할 내란 이후의 숙제라는 생각을 했지만, 구속 자 체가 취소되는 사태에 이를 것이라고는, 정말 예상치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애써 다시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광장을 열고 다양한 저항운동을 방법들을 고안해가며 함께 있음의 감각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매우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의의 습격을 받은 이 마음이 잘 수습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지방 법원의 구속 취소와 대검찰청의 즉시 항고 포기로 인해 실제로 윤석열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압도적으로 충격적이기 때문입니다, hyper-legalism(법전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율법주의)이 ‘법치’의 본래 의미인 ‘모두가 법 앞에서 동등하다’는 전제를 흔들고 있는 상황은, 마치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문자주의자’들이 성경 문구를 근거로 동성애자를 탄압하고 여성을 차별하는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조치에 대해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법률 절차상의 문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 교정되기를 바란다며 차라리 잘되었다고 하는 법률가와 노동운동가, 사회운동 일부, 지식인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적지 않았다는 게 또한 충격에서 쉽사리 나오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토론과 관계없는 서설을 늘어놓은 것은, ‘남태령’이라는 깃발과 그 깃발 아래 모였던 시민들의 모습이 제게는 지금의 국면에서 겪은 어떤 절망적인 심정을 길어올리는 아주 드문 희망이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그 날을 만 들어주고, 그 날의 기억을 아카이빙해주시면서 그 날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떤 덧붙임이나 과장없이 남태령이 없었다면 내란 이후 지금까지 닳을 내릴 곳을 찾지 못하고 내내 부유했을 것만 같습니다.
2. 김후주 선생님의 발제문은 의병운동에 대한 대중적 정동을 만들어낸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나라로부터 받은 은혜도 없으면서 위기가 닥치면 떨쳐 일어나는 독특한 유전자를 가진 민중들이 화답하여 일어나 싸웠다” 이 문장은 나라로부터 한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던 이들이기에 늘 국민됨의 자격을 의심받았던 이들이 막상 나라가 위협에 처하자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행동에 대한 경이로움을 담고 있습니다. 김후주 선생님은 ‘남태령’을 ‘대첩’, ‘정말 오랜만에 이룬 시민사회의 승리’로,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의미화합니다. 남태령이 이번 내란 정국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고 이것을 잘 기록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 사

건의 의미화 과정에서 자주 언급되는 ‘대첩’과 ‘승리’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첫째, 아카이빙 단계에서 할 수 있는 평가가 아니고, 둘째, 하지만 이 승리는 어떤 승리, 무엇에 대한 승리. 누구의 승리인지에 대한 개념 정의가 공백으로 있습니다. 셋째, 이 개념의 공백 사이로 남태령의 자유발언대에서 나타나는 퀴어한 시민들의 가시성이 도드라졌습니다. 그 결과 저는 사람들이 남태령이라는 광장을 일종의 배제된 자들이 성원권을 인정받기 위한 인정 투쟁의 장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경향성을 (다소 우려하면서) 읽었습니다.

3. 왜냐하면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공동체의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집단이 헌신적인 투쟁을 통해 이후 공동체 내에서의 지위가 달라지는 일은 공동체의 역사 만들기 과정에서 종종 채택되는 일종의 ‘신화’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혜택과 의무가 적절하게 나누어지는 것을 정의로 보는 존 롤스식 정의론의 견지에서 보자면 공동체가 위기에 처한 순간이야말로 공동체의 성원으로서의 의무를 할 수 있는 순간이 될 겁니다. 그동안 의무없음의 위치에서 기회를 얻지 못했던 이들에게 공동체의 위기는 곧 공동체의 진정한 구성원이 될 계기가 됩니다. 만약에 남태령에서 나타나는 저항을 성원권의 인정투쟁과 분배의 정의에 대한 요구로, 즉 ‘나라로부터 받은 것이 없는 이들’이 앞으로 ‘나라로부터 받을 것이 있는 이들’로서 전환되는 것으로서 의미를 부여한다면 탄핵 찬성 측이나 탄핵 반대측이나 거의 똑같은 서사 구조를 가지게 될 겁니다. 어느 쪽이나 ‘나라를 지키는 이들’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주체의 위치가 주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이런 식의 일종의 소유로서의 성원권 논의와 ‘나라를 지키다’라는 프레임 자체가 남태령 이후 퀴어/여성커뮤니티의 크레딧 논쟁이 일어나게 된 내적 계기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4. 그런 점에서 김후주 선생님은 남태령을 “삶의 근본적인 부분에서 변화”를 만들어 낸 경험으로 얘기한 것이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남태령의 밤과 새벽을 라이브 영상을 통해 지켜보면서 저기 계신 분들은 앞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태령의 시민들은, 키세스단은, 응원봉은, 말벌 동지들은 지켜야할 (과거의) 공동체가 아니라, 한번도 도래한 적이 없었던 공동체를 그 자리에서 새롭게 만들어간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세상이 있을 수 있다고 경험한 이들은,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욱, 남태령의 그 밤과 이후에 대해 가감없는 기록이 남겨져도, 저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날의 ‘전환’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남태령의 아카이빙은 그날 만들어진 세계를 잃어버리지/잊어버리지 않는 기억의 투쟁이자, 앞으로 만들어질 세계에 대한 체크포인트로서의 ‘닷’이자 ‘깃발’이 될 것입니다.
5. 줄글로 되어있지 않은 발제문이기 때문에 발제자의 의도에 대한 곡해의 여지가 있음을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김해은 선생님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회운동의 한계를 지적하는 동시에, 남태령이 그 한계를 극복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실제로 제가 목격한 ‘남태령’ 싸움에 참여한 이들은 현실의 조직력이 미비하지도 않았고, 광장의 정치환경과 학술장에서 다양한 차원의 강력한 정치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가짜뉴

스에 대한 대응도 체계적이었고, 혐오에 단호했습니다. 다만 김해은 선생님의 지적대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만 남은 데이터는 휘발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키워드나 해시태그로만으로는 수집하기 어려운 당시의 현장성과 ‘그 당시 내가 본 것’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지적은 남태령 투쟁의 기록에서 매우 중요한 현장성, 그 날의 감각을 되살려야 한다는 아카이빙 방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향후 제시된 방향에 따라 남태령의 아카이빙이 단지 단순한 기록 차원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재경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6. 최별 선생님의 발제는 이 토론문 작성 과정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도달했으나, 그 미완성 발제문인 상태에서의 흥미로운 점에 대해 밑줄과 보충을 하고 싶습니다. “고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광장에 접속함”이라는 점은, 언제나 새로운 인물과 영역을 조직해내라는 사회운동의 다소 관성적인 요구가 다시 쓰여질 수 있음을 환기합니다. 즉, “고인물”인 “내”가 광장의 정치에 (재)조직 되는 경험은, ‘뉴페이스’를 기존의 운동에 계속해서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운동의 방법론과 조직론 자체를 새롭게 발견된 광장 재접속의 경로를 통해 재구성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후 완성된 발제문에서 당일 토론회에서 토론문에 담지 못한 이야기를 현장토론 하겠습니다.